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고생

양심

진실 되고 옳은

행동을 실천하는 마음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番 살펴갈 내일!
: 살필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2019
07

2019.07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옳고 선한 길을 따르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모두가 양심을 지키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월간 <교정>에서 정의를 만드는 양심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날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7월호 (통권 518호) 63권 7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희망찬 마음 =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돈에도 양심이 있다

08
사람을 읽다
개그맨 강일구
법무부 교회방송 자문위원

12
역사를 품다
백성을 생각한 직언으로 나라를 살찌우다
한후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양심'

16
교정은 행복을 싣고
동료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고마운 선물
(울산구치소)

20
영화 같은 하루
의기투합하여 '금덩이'를 구하는 팀
(대전교도소 복지과)

24
일상 상담소
이왕 반대하더라도 기분은 좋게

26
마음 나침반
당신은 양심을 잘 지키고 있나요?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강제 노역에서 교도작업으로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도보 여행의 매력을 전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길 찾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34
신조어백과
고인물 & 자만초

36
글로벌 핫클릭
인도네시아, 라마단 종료 기념 11만 명 감형…
교도소 식비 45억 원 절감 외



深 入

뜻깊은 오늘 +

宿 在

살펴갈 내일 !

38
여민 교정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

42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호기롭게 떠난 일본,
여행 이야기에 밤 지새운 날들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뒤늦은 죄책감, 오늘도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46
교정을 말하다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관련 착안점(上)

52
HEADLINE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국민이 전하다
미디어에 교정공무원을 많이 알렸으면…

65
낱말퀴즈

66
독자의 소리



• 1-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양심이 옳다고 느끼지거든 단연코 그렇게 놓아라!

남이 반대한다고 자기의 신념을 깨지는 말라!

– 채근담 –

때때로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방법은 수고스러움을 동반한다. 양심에는 반하지만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선택하느냐, 번거롭지만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약간의 수고스러움과 고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어떤 행동을 한 다음 마음이 무겁거나 불편하다면 내내 죄책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양심과 신념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밝은 빛이 열리리라 믿는다면 분명히 옳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더욱 단단한 마음의 힘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자.



돈에도 양심이 있다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쉽게 말하는 자들은 결핏하면 애덤 스미스를 들먹인다. 그러나 그들이『국부론』이나『도덕감정론』을 몇 줄이라도 과연 제대로 읽어 봤을까? 그저 제 돈 불리는 데에 유리한 말만 짚어모아 떠들 뿐이다.

“정치경제학은 정치가·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서 간주되는 경우, 두 개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풍부한 소득이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소득 또는 생활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국가 또는 공화국에 세입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뼈대를 마련했고 자본주의자들이 신봉하는(물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떼어 쓰지만) 애덤 스미스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가난의 질곡이 힘겹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뭉개지는 현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선택한다. 파우스트 박사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팔았다면 지금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약수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란 국가와 국민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설령 선언적인 것이라 해도 의미심장하다. 누구나 부를 추구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의연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말 속에는 그 혜택을 받는 개개인 모두가 그 의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오직 나만의 이해와 욕망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면 재고해 보아야 할 일이다. 적어도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행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그게 정의고 양심이다. 거창한 게 아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옥죄기 위해 대륙봉쇄령(1806)을 발동했다.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로 영국의 군사력을 굴복시키기 어렵게 되자 경제적 봉쇄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대륙의 다른 여러 나라 산업이 오히려 영국에 압도된 상태였고 프랑스는 생산력이 따르지 못해 다른 나라의 물자 부족 현상을 초래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영국도 산업혁명 때문에 농업 생산물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구는 증가했으니 농산물 소비가 급증한 상태에서 유럽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영국의 농산물 가격은 치솟았다. 그에 따라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농지의 가격도 급상승했다. 산업혁명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락하던 귀족들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에 이어 고전경제학을 완성한 대표적 경제학자였다. 그는 사업에 성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특히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그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 의해 농산물과 농지 가격이 상승하자 큰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노동하지 않은 불로소득이 불편하였다. 물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패퇴하고 대륙봉쇄령이 해제되어 곡물가격이 폭락하고 농업공황이 일어나자 파산자가 속출하고 지주들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1815년에 곡물법을 만들어서 외국으로부터 값싼 곡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의회에서 그런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의회는 이익공동체였고 리카도는 그 법령의 제정에 분노했다.

그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본 상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고수하려는 그릇된 욕망에서 곡물법이 비롯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기생한 세력을 질타했다. 분명 자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

해서 자기 이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이 비싼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라며 의연하게 그런 욕망을 비판했다.

지대가 상승한 것은 대륙봉쇄령 때문에 곡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었기 때문이지 그 자체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데 악법을 만들어서까지 그 탐욕을 지속적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돈에 굴복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건 비양심의 첨경이다. 경제는 말 그대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 방법과 수단은 돈이다. 돈 그 자체가 경제는 아니다. 그러나 돈의 위력은 막강해서 돈을 다루는 경제학을 송배한다. 품격을 포장하기 위해 경제학에 대한 숭배로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경배의 표현에 불과하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겹다. 돈에 초연한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 혹은 정치적 신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양심은 바로 ‘경제적 양심’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범법행위도 불사하는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비양심 때문에 사회가 멍든다.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자신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비양심이다. 누구나 욕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욕망도 조금은 공평함에 다가서는 겸손과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경제는 그것을 살려내는 길을 내고 거기에서 돈을 선망하는 삶이 아니라 선망하는 삶을 구현할 돈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돈에 양심이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책탐』,『생각의 융합』,『엄마 인문학』,『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책탐』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교정개그맨 강일구입니다

개그맨 강일구

법무부 교회방송 자문위원

소위 ‘먹히는’ 방송 프로그램은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감’이다. 보고 듣는 이가 얼마나 공감했는지가 인기의 척도인 셈. 법무부 교회방송도 예외는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교회방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지금은 교회방송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강일구 씨. 그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포개지는 접점을 넓히려 애썼다. 덕분에 그는 수용자들 앞에 있을 때 가장 신나는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고, 어느새 ‘교정개그맨 강일구입니다’라는 소개말이 착붙는, 말 그대로 교정 전문 개그맨이 되었다.

채널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방송하는 개그맨

한때 왕성하게 활동하다 어느 날부터가 방송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의 근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전혀 뜻밖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안방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을 뿐 여전히 대중이 기억하는 그 분야에 몸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지금은 종영한 이 프로그램에서 과거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일명 ‘일구시대’를 열었던 개그맨 강일구 씨를 다룬다면, 그는 후자에 속한다.

“최근에도 방송 관련 회의에 다녀왔어요.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공중파나 케이블방송국이 아니라 법무부로, 개그 프로그램이 아닌 수용자 대상의 교회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라는 거죠. 개그맨이 아닌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다른 점이겠네요.”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강일구 씨는 개그맨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덤에 올랐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얻은 인기는 여러 편의 CF 촬영으로 이어져 당시 동기와 선후배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친숙했던 그의 얼굴과 이름은 몇 번의 개편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방송에서 멀어졌다. 한때 인기를 한 몸에 받았으나 지금은 유명세에서 한 발



짝 비껴난 수많은 연예인들의 목록 어디께 은근슬쩍 편입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등 안방 방송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는 여전히 방송하는 개그맨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서 밝혔듯 6월 중순에도 방송 관련 회의에 다녀왔다.

교정게스트로 최장수기록 보유

개그맨 강일구 씨와 법무부 교회방송의 인연은 KBS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하던 시절 친분을 쌓은 작가가 맺어 주었다. KBS 라디오에서 일하다 교정공무원 시험을 거쳐 교회방송을 담당하게 된 작가가 강일구 씨에게 프로그램 게스트로 참여해 달라고 연락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근무 중인 최미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힐링 먼데이’라는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수용자들이 보내온 고민상담 사연을 최 아나운서가 읽어 주면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포맷이었는데요. 교회방송 특성상 제약이 많다 보니 처음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에 나가는 방송인 만큼 무거움을 덜고 잔잔한 웃음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명인 성대모사로 승부수를 띄었죠.”

개그맨 공채시험에서 합격을 안겨 준 그의 필살기이자 이후





개그콘서트에서 강일구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유명인 성대모사는 교회방송에서도 통하였다. 덕분에 게스트로 출연한 첫날, 현장에서 제작진으로부터 ‘계속 가자’는 재안을 받았다. 그렇게 고정 게스트가 된 강일구 씨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 때까지 장장 8년 동안 매주 수용자들의 고민해결사로 함께하였다. 교회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정 게스트로는 최장기록이다.

350번의 인사가 가져온 변화

게스트로 쌓은 신뢰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로 이어졌다. 그중 ‘씹고 뜯고 맛보는 팝송’은 애초에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강일구 씨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고민상담과 마찬가지로 영어공부도 진지한 접근보다는 개그맨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풀어내 3년 동안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텔레비전방송으로 보폭도 넓혔는데, ‘필미 힐미’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맡아 지금까지 여섯 번의 촬영을 마쳤다. 다만 ‘힐링 면데이’를 포함하여 ‘씹고 뜯고 맛보는 팝송’과 ‘필미 힐미’ 등의 방송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제작 현장은 이전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회방송임을 좀 더 생생하게 실감하게 된 건 2014년에 시작한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으면서였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찾아다니며 촬영한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



랑’은 그동안 사연으로만 만나던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한 첫 번째 자리였다. ‘힐링 면데이’ 게스트로 처음 교회방송에 참여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으로 무대에 올랐다.

“전국노래자랑 시그널이 울리고 제가 ‘찾아가는 전국’이라고 외치면 수용자들이 ‘노래자랑’ 하고 함성으로 반았는데, 처음 몇 회만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수용자들의 얼굴은 무기력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 방송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반가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네 번째 촬영을 진행한 교정시설 대강당 입구에서 입장하는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웃는 얼굴로 눈을 맞추며 ‘반갑습니다, 개그맨 강일구입니다’라고 인사했다. 350명의 수용자가 입장했으나 350번의 인사를 건넨 셈. 그런 다음 무대에 올라 ‘찾아가는 전국’을 외쳤는데, 이 전과는 데시벨이 달랐다. 함성에 흥과 힘이 실렸고, 춤을 추며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강일구 씨는 그날의 경험을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와 수용자들 사이에 놓여 있던 거리가 좁혀지면서 그도, 수용자들도 신나게 방송하게 된 것이다.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 말고도 전국의 교정시설을 방문할 기회는 또 있었다. 방송이 아닌 이벤트 행사로 진행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외부단체의 주관과 후원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33개의 교정시설을 방문하였다. 3년 동안 진행한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까지 더하면 교회방송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교



개그맨 강일구 씨가 교정공무원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여느 공무원들과 달리 직접 눈으로 본 교정공무원들은 언제나 바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는 교정공무원 한 명당 100여 명의 수용자들이 활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활동량이 군대 조교 못지않아요. 하루 1만 보 이상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교정 질서 뒤에 언제나 열심히 뛰는 교정공무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정공무원 분들을 알아주는 이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활동을 하는 이들을 통틀어도 견줄 만한 이가 드물 터. 이렇듯 빈도와 밀도가 춤춤해지는 사이 수용자와의 특별한 인연도 생겨났다.

“한번은 교회방송국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찾아가는 수용자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하여 임상한 수용자인데 그 때 큰 힘을 얻었다는 인사와 함께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갔다는 소식,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장소와 날짜, 시간을 알려 주며 저에게 사회를 요청했는데, 예비신부와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죠. 그 마음이 고마워서 편지를 보는데 월각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무런 대가 없이 결혼식 사회를 보기 위해 식장을 찾은 날도 신랑신부와 기념사진을 찍다 메이크업이 지워지도록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그렇게 가까워져 이후 아이 돌잔치 사회를 하는 등 기쁜 일을 나누며 지금까지도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양심

요즘 강일구 씨는 매월 진행하는 ‘필미 힐미’ 외에 또 하나의 영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열정을 쏟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때 도입한 장비가 이후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 제작진과 의기투합하여 얼마 전부터 교정 시설을 찾아다니며 ‘찾아가는 영화관’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 것. 다행히 이런 마음을 알아봐 준 안양교도소에서 7월 말에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시즌 2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 있다. 방송, 행사와는 별개로 교정공무원들 대상의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거창하게 ‘웃음과 소통’으로 강연 제목을 달았지만 웃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실제로 본론에 앞서 한 시간은 폭소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죠. 대신 교정공무원들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공부는 꼭 하고 가요.

농담 한 마디를 할 때도 정확한 교정 용어를 사용하고요. 저 또한 ‘법자(법무부의 아들)’란 말로 웃음과 함께 공감을 이끌어내죠.”

법무부 교회방송과 강연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그맨으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잊은 건 결코 아니다. 방송인 조영구 씨와 함께 꾸려나가는 이벤트 전문회사인 ‘다빈치컴퍼니’에서 관련 업무를 구상하는 짬짬이 후배들에게 개그 소재를 귀띔해 줄 만큼 개그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다.

“박나래, 이승윤, 김지민 등 요즘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개그맨들이 KBS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들이에요. 당연히 응원하는 마음이 크지만 솔직히 교회방송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상대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회방송 덕분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교회방송에 나와 달라는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방송을 오래 해 오면서 그가 맞닥뜨린 변화는 적잖다. 예전에는 뭔가를 하다 막히면 쉽게 그만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방송을 하다 발음이 꼬이는 등의 실수를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애쓴다. 무엇보다 매일 하루를 마치는 시점에 스스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질문하는 걸 잊지 않는다. 교회방송을 통해 누구도 아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양심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까닭이다.

“처음 교회방송국에서 섭외전화가 왔을 때 대뜸 ‘얼마예요?’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교회방송이라면 ‘얼마든지’ 출연하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송을 할지 알 수 있지만 교회방송을 통해 평생 함께할 개그맨이란 직업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더 자주 중얼거리게 되어요. ‘개그맨 하길 참 잘했다’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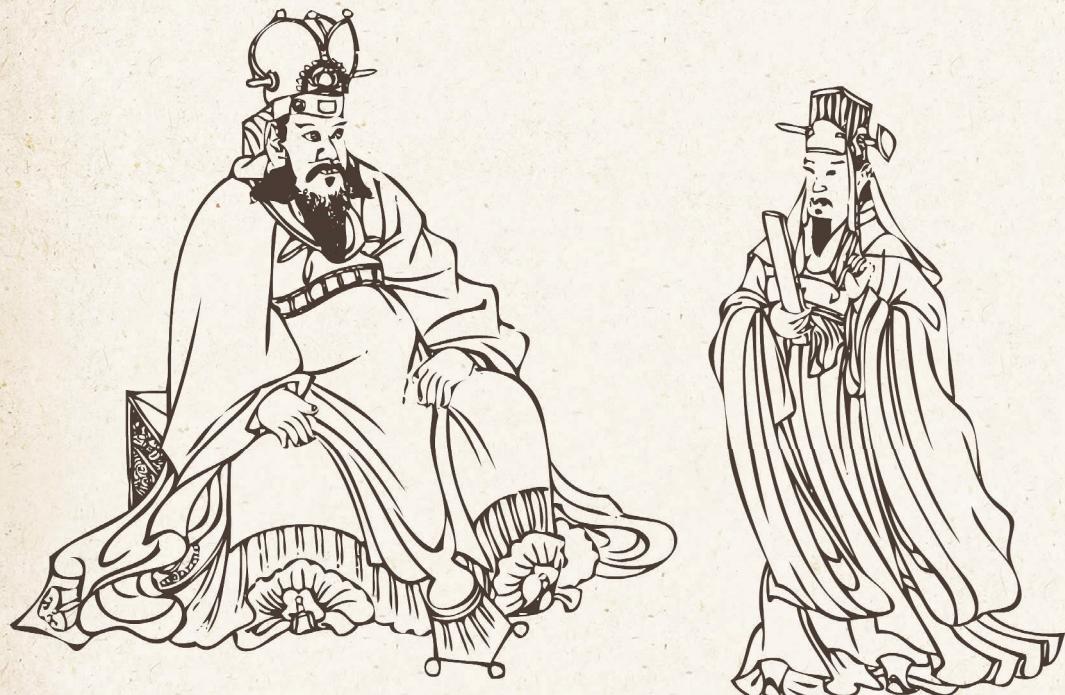
백성을 생각한 직언으로 나라를 살찌우다

한휴

성공한 지도자의 공통점은 직언과 충고를 하는 인재를 곁에 두었다는 점이다.
지도자는 부하의 바른 소리를 귀담아듣고 변하려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부하 직원이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보통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했을 때 이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나라의 '한휴'는 흔히 볼 수 없는 신하였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 임금인 현종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참된 충성심, 직언을 서슴지 않다

공직자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때 참된 충성심이란 지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마음가짐을 가리킨다. 단지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 지도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행동은 충성심으로 보기 어렵다. 지도자를 보좌하는 공직자가 지도자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평화가 흐트러지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참된 충성심을 가진 공직자란 어떤 그룹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대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충고와 직언을 할 줄 아는 이다. 참된 공직자가 되려면 흐트러지지 않는 양심과 불이익을 감당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지도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 용기 내 이야기해야 한다.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직언과 충고를 하는 인물을 둔 지도자는 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제6대 황제 현종은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명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하고 참된 인재를 곁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옆에 있는 인재들은 능력이 뛰어났으며, 현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재상 '한휴'는 현종에게 스스로 없이 직언한 인물로 유명하다. 들으려는 자세를 기울인 현종과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직언하는 한휴가 만나 당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역사서를 보면 한휴에 대해 '나라·일에 관계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직언하고 충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휴는 강직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성군을 보필하여 나라의 부흥을 이끌다

한휴의 직언으로 인해 현종은 눈치를 보기도 하였다. 한휴는 재상이 된 후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현종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종은 별 말은 하지 않았으나 줄곧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현종은 궁중에서 연회를 열거나 사냥을 나가면서도 즐기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새였다. 흠이나 차질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현종은 다른 신하에게 한휴가 이 사실을 아는지 물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휴의 상소가 날아왔다. 마침 한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측근의 신하들은 현종의 심증을 눈치 채고 한휴를 헐뜯었다.

"한휴가 재상이 되고 나서 황제께서 이전보다 유달리 야위었는데 왜 그를 자르지 않습니까?"

이때 현종은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비위만 맞추는 신하를 곁에 두면 국정을 돌볼 수 없어 편히 잠을 잘 수 없지만, 한휴 같은 신하와 일하니 천하를 생각하더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현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모습은 비록 야위었지만 천하의 백성들은 살찌지 않았는가. 내가 그를 기용한 것은 사직을 위한 따름으로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파직은 당치도 않는 일이다."

현종은 한휴의 직언과 충고가 진심임을 알고 있어 한휴를 응호하였다. 한휴가 곁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었기에 현종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황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역사 속 많은 신하들의 경우가 밀해 주듯이 충언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한휴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걸었다. 한 지도자의 진정한 보필이자 신하, 재상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온 한휴. 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언급되는 것은 강직하고 꽂꽃한 양심 때문이 아닐까.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양심’

7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합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선택을 해야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가치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번 호 주제인 ‘양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양심은 사랑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순간의 양심을 저버려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수용자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관으로서 저 또한 항상 양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교사 이장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움과 활동을 합니다. 미술, 서예, 점토, 만들기 등... 항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제일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기에, 최고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한 것 같지만요. 아이의 웃음과 행복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의 ‘양심’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하.

〈의정부교도소 교위 손형준〉

어릴 적 엄마의 지갑에서 동전을 슬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요. 그 후론 제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독자 박정미〉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여 집 근처 세종시 합강 강변을 뛰곤 합니다. 보통 출근 전에 조깅을 하는데 뛰다 보면 주변 강변의 정취에 젖어 저도 모르게 너무 멀리 뛰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뛰다 보니 물을 준비하지 못해 목이 마를 때가 있었는데요. 제 마음을 아는지 누군가가 합강 근처에 양심음료수 판매대를 만들어 두었더군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고 당장의 이익에 눈 먼 사람들이 많기에 이렇게 운영되는 무인판매대가 신기하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나그네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얼음까지 넣어둔 시원한 생수와 음료수를 보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대전교도소 교위 최승우〉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동료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고마운 선물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속에 간간이 부는 바람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일상의 휴식도 햇살 속의 바람이 아닐까. 분주한 일터에서 맛보는 잠깐의 휴식은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된다. 현장의 직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교정은 행복을 싣고'가 울산구치소로 떴다. 6월의 끝자락, 저마다 행복한 미소와 웃음으로 하나된 현장으로 가 보자.

울산구치소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네 시. 울산구치소 회의실에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여섯 명이 둘러 앉도록 책상과 의자를 마주 보게 배치해 놓은 모습이 눈에 띈다. 앞쪽 책상에는 여러 게임 도구와 각종 선물 및 경품이 놓여 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하는 것일까. 궁금하던 그 때,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치킨과 음료가 배달되었다. 텁별로 나눈 6개의 테이블마다 막 튀겨온 따끈한 치킨이 세팅되고,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4시 30분이 되자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삼삼오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직원들은 온 얼굴에 웃음을 지은 채 자리에 앉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지 꽤 지나 저절로 배꼽시계가 울리는 출출한 시간.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치킨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돈다. 자리에 앉은 김창곤 교위는 "지금이 딱 출출한 시간인데, 오늘 치킨데 이네요?"라고 물으며 웃는다. 옆에서 박영석 교감이 "치킨은 따실 때 먹어야 맛있지, 이게 저녁이네!" 하며 맞장구친다.



“1인 1닭? 오늘 계 탔네!”

어느새 자리는 직원들로 꽉 채워졌다. 이날은 세 개씩 붙인 책상이 테이블이 되었다. 테이블마다 놓인 푸짐한 치킨 박스를 보면 “1인 1닭”이라며 좋아한다. 마치 계 타는 날처럼, ‘닭’에 둘러싸여 더욱 신나는 모습이다. 마주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치킨을 맛있게 먹는 직원들. 오늘 제대로 포식하는 날이다.

“같이 드이소!”하면서 컵에 콜라를 따라 준다. “뭐든지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첫 대면이지만 구수한 사투리와 유머에 금세 정감이 생겨난다. 사람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가까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어느 정도 치킨을 먹은 후, 윤종웅 교위가 ‘교정은 행복을 싣고’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더운 날씨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울산구치소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과 다양한 선물을 나누는 작은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임에 집중하며 모두가 웃고 즐긴 시간

드디어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었다. 자리에 앉은 대로 약 여섯 명씩 총 여섯 개 팀으로 나뉘어졌다. 이 여섯 팀은 다시 세 팀씩 나누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였다. A, B, C팀이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하고 옆에서 D, F, E팀이 윗놀이 룰렛 게임을 시작했다. 블록 쌓기 게임은 쌓아 올린 블록을 하나씩 제거해 맨 위에 다시 쌓아 가는 방식이다. 블록을 제거하다가 텁이 쓰러지면 탈락한다. 각 팀에서 두 명씩 대표 주자가 나와 블록을 제거해 갔



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대로 블록을 제거하는데, B팀에서 숫자 5가 나오는 바람에 블록을 제거하다가 와르르 무너졌다. B팀원들의 마음도 덩달아 무너졌으리라. C팀도 5가 나왔지만 아슬아슬하게 성공했다. A팀은 숫자 4가 나왔는데, 손에 땀을 진 끝에 성공하였다. 보는 이들마저 긴장감에 눈을 깜빡 줄 모른다.

탑은 군데군데 구멍을 보이며 위태로워 보였다. 차례가 다가와 C팀이 블록에 손을 대자 결국 탑이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 기나긴 대결 끝에 A팀이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옆에서는 룰렛 회전판을 돌려 윗놀이 밀판에 따라 이동하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애초에는 룰렛 회전판에 새겨진 주사위 숫자만큼 이동하는 룰이었는데 윗 모양도 새겨져 있는 것을 보자 직원들이 즉석에서 룰을 변경하였다. 룰렛을 돌리는 방식이라 어릴 적에 했던 윗놀이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직원들은 “윗놀이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각 팀에서 나온 대표 주자는 재빨리 회전판을 돌리며 승부를 겨루었다. 모두가 아는 게임인 데다 좀 더 쉬운 방식의 룰렛 회전판 돌리기로 진행되니 참여자 모두 고수가 따로 없었다. ‘윷’이 연속으로 나오는 행운까지 겹치자 팀원들이 옆에서 말 두 개를 엎어서 같이 가라, 다른 팀 말을 잡으라며 소리치기도 한다. D, F, E팀은 이 게임은 식은 죽 먹기라는 듯이 재빨리 승패를 겨루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승리는 ‘윷’이 연속으로 나오는 행운의 주인공 D팀에게 돌아갔다.



이마의 땀을 식혀 주는 바람처럼 고마운 하루

게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각 게임에서 이긴 A팀과 D팀이 나와서 해적 룰렛 게임으로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였다. 이 게임이 더 조마조마한 이유는 100% 운에 달려 있기 때문.

나무 블록 쌓기나 윗놀이 룰렛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의논할 여지가 있지만 해적 룰렛 게임은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복불복’ 게임이다. 칼집이 나 있는 해적통에 각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적검을 꽂다가 잘못 걸리면 해적인형이 튕겨 날아오른다. 잔뜩 긴장한 채 하나씩 해적검을 꽂는다. D팀에 소속된 직원이 과감하게 해적검을 꽂는 순간, 아뿔싸 해적인형이 튕어 올랐다. 깜짝 놀라는 것과 동시에 아쉬운 탄성이 터진다.

최종 승리한 A팀 여섯 명은 화장품, 블루투스 이어폰, 스타벅스 카드, 영화 예매권 등 원하는 상품을 택했다. 2등을 한 D팀도 가위바위보를 통해 상품을 나누어 가졌다.

게임에서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상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패자 부활전으로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졌다. 몸통만한 상자에 들어 있는 추첨 종이를 무작위로 뽑는 직원들. 여기저기서 “꽝이네”, “오! 저요”, “이건 뭐예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알고 봤더니 ‘한 번 더’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던 것. ‘한 번 더’ 종이를 뽑은 직원들은 잔뜩 기대를 품고 우르르 몰려와 다시 한번 종이를 뽑아 보았다.

드디어 최종 당첨된 직원들이 선별되었다. 이들에게도 화장

품, 핸드선풍기 등 다양한 경품이 돌아갔다. 경품에 당첨된 이 보라 교사는 “정말 예기치 않게 화장품을 받아서 기쁘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우승한 A팀의 정민기 교위는 “영화예매권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영화를 보겠다”고 말하였다. 오수진 교위도 “우리 딸이 더 예뻐지라고 오늘 받은 화장품을 선물하겠다”며 웃는다.

다들 한바탕 웃고 즐긴 사이, 어느새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돌아갔다. 동료들과 함께하기에 오늘 이 순간이 더욱 값진 것 아닐까. 이지수 교사는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면서 “정말 모두가 즐거워한 시간이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는 직원들. 어깨가 더 펴지고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더운 날 이마의 땀을 식혀 주는 바람처럼, 이날 하루는 짧지만 저마다 고맙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리라.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엑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의기투합하여 '금덩이'를 구하는 팀

대전교도소 복지과



오후 네 시가 살짝 넘은 시간, 대전교도소 복지과 직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삼삼오오 모인다.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잔뜩 멋을 부린 직원이나 형광색 바람막이를 입은 직원에게 어디 좋은 데 가냐며 농담을 건넨다. 근무 연수가 한참 아래인 직원이 30년 넘게 근무한 대선배에게 장난을 거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들은 서로 팀 분위기를 자랑하기 바쁘다.

격의 없는 우리 팀을 자랑합니다

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국립대전현충원에 들어서니 엄숙한 분위기가 감돈다. 그러나 만남의 광장에 직원들이 하나 둘 모이자 국립대전현충원이 금세 활기를 띤다. ‘영화 같은 하루’ 신청자인 대전교도소 복지과 최승우 교위는 현충일이 있는 달인 만큼 좀 더 의미 있는 장소를 택하였다. 마침 둘레길도 잘 마련되어 있어 팀원들과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먼저 도착한 직원들은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신청자인 최승우 교위의 추진력과 기획력을 칭찬한다.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한껏 멋을 낸 직원도 보인다.

“촬영 끝나고 혼자 어디 좋은 데 가요? 형광색 바람막이는 너무 튀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단정하게 맞춰 입고 온 건데.”

“오늘 좋은 날이라 멋 좀 내봤어요.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근무 연수가 한참 아래인 직원이 대선배의 장난을 맞받아친다.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 격의 없는 팀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화도 한번 안 내시고 잘 받아 주세요” 라며 자랑하는데 “저한테 하는 거 보세요. 절대 격의나 권위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라는 대답이 따라온다. 조금 투덜거리는 말투와 달리 표정은 싱글벙글하다.

복지과는 예산 운용, 시설·물품 관리, 급양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뭉친 곳이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 한데 모여 대화 나누는 시간이 귀하다. 마흔 명 남짓한 복지과 직원 중 모인 인원은 아홉 명. 최승우 교위는 오늘이 동료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웃음 지었다.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같은 자리에 모여 의기투합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쉽게 모일 수 없는 구성원이잖아요. 한데 모이니 벌써부터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어요. 대전교도소 복지과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부서거든요. 우리를 알리고 싶어요.”

산책하며 대화 나누는 대전교도소 복지과의 문화

이들은 만남의 광장에서 한 차례 수다를 떨다가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둘레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무지개색 일곱 개의 보훈둘레길 가운데 선택한 길은 빨강길.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호국철도기념관과 연결되어 있다. 햇볕이 유난히 뜨거운 초여름, 더울 만도 한데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산책하기가 수월하다. 이방강 교사는 동료들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기 바빠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한다. 알고 보니 복지과의 포토그래퍼로 불린다고. 그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보여 주었다.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채팅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오지 못한 분들도 볼 수 있겠죠. 오로지 친목을 위해서만 카카오톡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 다녀온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일상도 많이 공유하죠.”

이윤영 교감은 그런 이방강 교사를 보고 “미워할 수 없는 동생”, “귀염둥이”라고 한다. 이방강 교사는 그 말에 응수하듯 이윤영 교감과 김은숙 식품위생주사는 참배를 위해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다. 산책길을 걸으면 밭이 아프리라 예상했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참배해야 할 것 같았다고 설명한다. 경비교도묘 앞에 서자 모두들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다. 조금 전의 웃음은 온데간데없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근차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애쓴다. 게다가 대전교도소는 부지가 넓고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문화를 이어 가고 있다. 사무실이나 현장이 아니라 바깥에서 대화를 나누기에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북념, 현충원을 찾은 이유이자 의미

보훈둘레길 빨강길의 끄트머리에 다다르자 호국철도기념관이 보인다. 마침 이곳에 처음 와 보는 직원이 있어 기념사진을 몇 컷 남겼다. 중기기관차 앞 계단에 나란히 서서 이리저리 자세를 잡거나 호국관·역사관 사이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사진 촬영에 열의를 보인다. 그런데 마음은 호국철도기념관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현충원은 우리 대전교도소 직원들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교정 본부 대표로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현충원을 방문하여 경비교도묘역에 현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경비교도묘역이 있어요. 얼른 가요.”

이윤영 교감과 김은숙 식품위생주사는 참배를 위해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다. 산책길을 걸으면 밭이 아프리라 예상했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참배해야 할 것 같았다고 설명한다. 경비교도묘 앞에 서자 모두들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다. 조금 전의 웃음은 온데간데없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원래 장태산 휴양림에 가려고 했는데 장소를 현충원으로 바꾸었어요. 소장님과 과장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들끼리 편하게 오늘을 즐기라며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복지과가 현충원을 따로 방문하니 의미가 남다르네요.”

재충전하여 화합의 결실을 맺다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산책 코스를 마무리 하니 여섯 시가 다 되어 간다.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저녁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근처에 예약해둔 한정식집에는 이미 가자미찜이며 녹두전, 달걀장조림 등 다양한 반찬이 세팅되어 있었다. 모두들 자리에 앉자 주 메뉴인 간장게장과 돼지양념갈비, 곤드레밥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갈한 음식으로 구성된 건강 밥상에 절로 젓가락에 손이 간다. 교정공무원으로서 34년 동안 지내 온 김건수 공업주사가 꼭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며 다른 동료들과 눈을 마주친다.

“1985년에 임용된 후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경험에요.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오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영화 같은 하루를 보내고 나니 다시 의욕이 샘솟습니다.”

김건수 공업주사에 이어 이윤영 교감도 소감을 전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과 바깥에서 만나는 모습이 사뭇 다르네요. 마치 동생, 오빠 같이 더 친근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늘 하나도 들기 힘들지만 잘 맞으면 금덩이를 구한

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금덩이를 구할 수 있는 팀이라고 확신합니다.”

음식을 덜어 주고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식사하는 동료들을 보면 최승우 교위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신청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구상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물어본 그이기에 오늘의 하루는 결실처럼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되어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이 생각나 아쉬움도 조금 남는다. 이들은 동료들과 다시 한번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함께 산책하는 계획을 세운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기에 어쩌면 가족보다 더 돈독한 사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걸어가던 이들의 뒷모습은 현충원의 석양만큼 아름답다.

월간 (교정)의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은 독자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고, 가고 싶은 장소에 방문하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이왕 반대하더라도 기분은 좋게

살아온 환경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 주려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늘 고개를 끄덕이면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두려워 나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경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왕 반대 의견을 말할 거라면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은 말하기 기술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기본,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같은 다른 경청은 대화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만큼 경청은 대화에서 큰 효과를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나의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의견을 더욱 부드럽고 편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타이밍에 호응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나의 이야기와 주장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대 입장을 제시할 여지가 충분하던 상황도 악화됩니다. 상황이 엉켜버리면 관계도 엉망이 되겠지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우선 나의 이야기는 잠깐 미루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끝낸 다음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긍정부터, 그다음에 의견을 말해야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을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좀 더 쉽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나와 다른 입장이더라도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라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더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상하여 귀를 닫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좋은 의견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라며 인정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두 직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논의하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제안을 해 보세요.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올 것입니다.

직원1 저는 A안을 생각해 봤어요. A안으로 진행하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준비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2 좋은 의견이에요. 저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A안보다는 비용이 더 들지만 B안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나 목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마침 A안과 B안의 진행비도 다른 안보다 차이가 적네요.

직원1 제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다 보니 사업의 성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번 건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성과가 따라올지도 모르겠네요. 좋아요. B안으로 진행해요.



긍정을 담은 언어를 사용해야

대화할 때 '하지만', '그런데'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로 말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의견을 반대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또 '하지만', '그런데'는 바로 뒷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 나옵니다. 대화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혹은 반대되는 언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앞의 대화처럼 긍정의 언어로 시작되며 나의 의견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의 언어는 긍정의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집필한 이현우 교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장할 때보다 하지 말라고 할 때 더 크게 반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항심을 일으켜 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 중간 긍정의 대답 '네'가 나올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 보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위의 대화를 예시로 들면 직원2가 직원1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해야 할 점이 사업 홍보라고 생각하시나요?", "A안 외에 B안은 보셨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반대 입장을 전하는 유익한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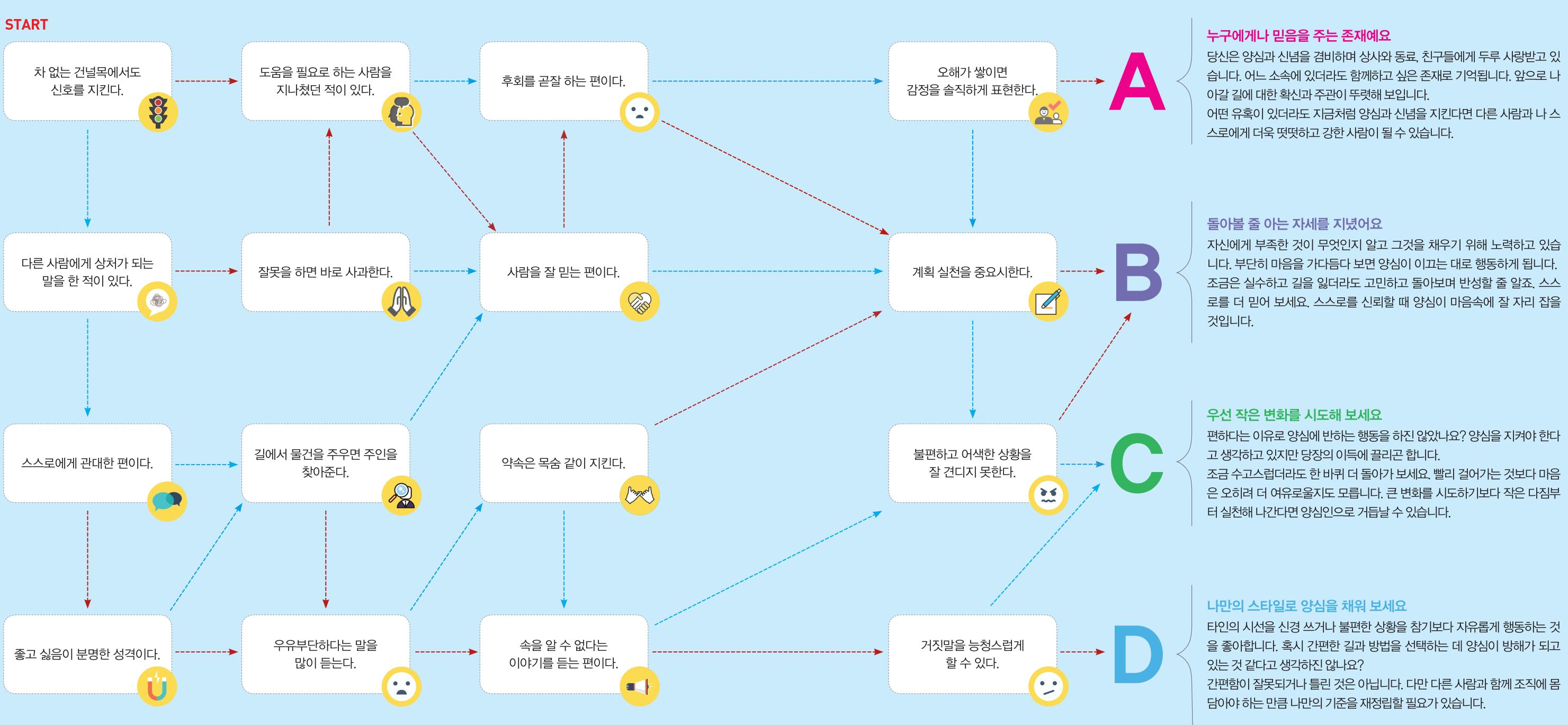


당신은 양심을 잘 지키고 있나요?

→ YES
→ NO

지금 이 순간은 지나온 나날의 술한 선택의 결과이다. 수십 개의 갈래로 나뉜 우리의 여정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졌는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지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양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참고서적 〈좋은 인재 나쁜 인재〉(정민정, 부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조현, 한겨레출판사)



강제 노역에서 교도작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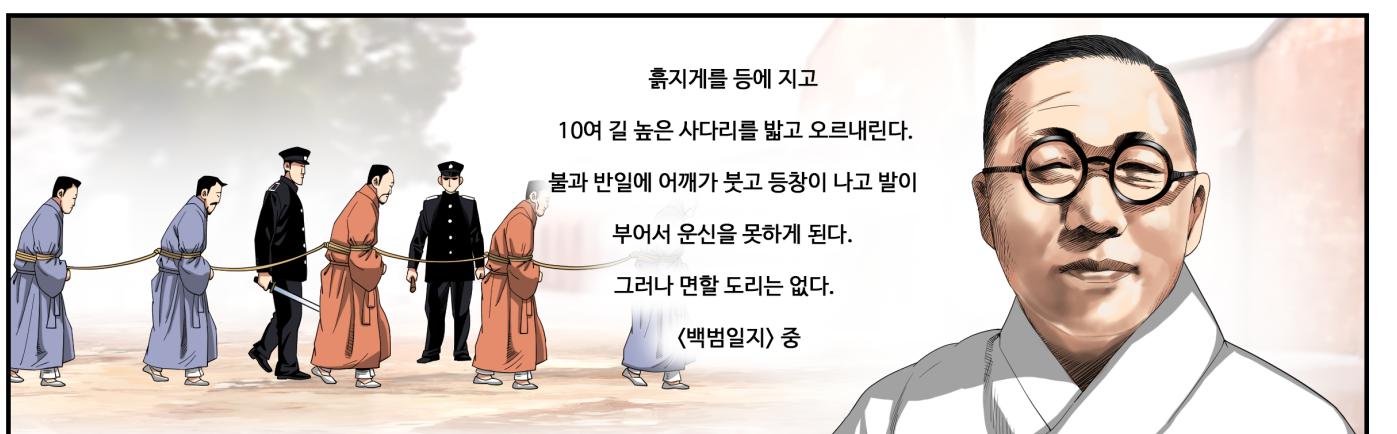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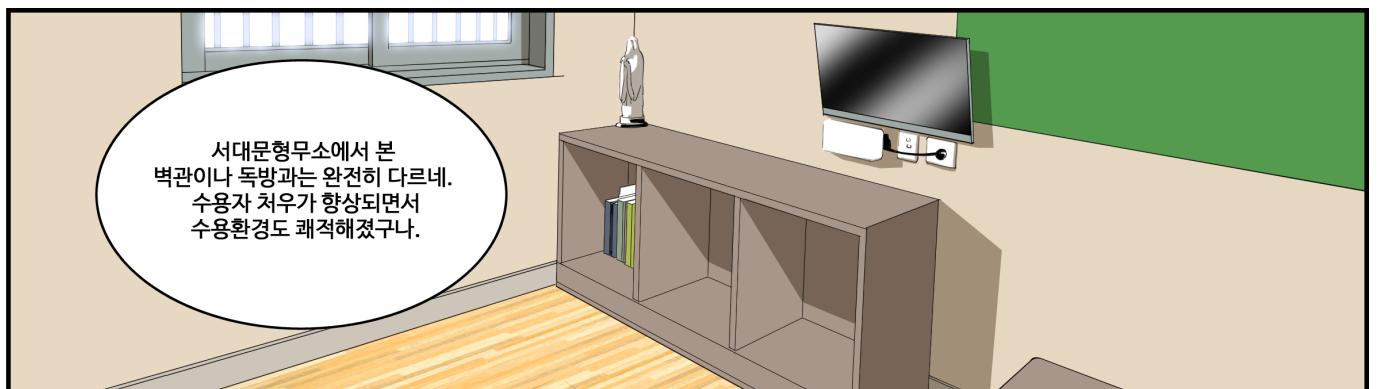
오늘 이쪽 수용자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러 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요?

아, 검색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형무소에서
자행되었던
강제노역 장면이
나와서요.

어우, 그땐 거의
고문 수준이었죠.
임금도 안 주고
온종일 일시키고요.
지금은 수용자들이
하루 여덟 시간 작업하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보 여행의 매력을 전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길 찾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Vladivostok

위치 러시아 연해주

인구 608,235명

면적 331.16 km²

비행시간 최소 2시간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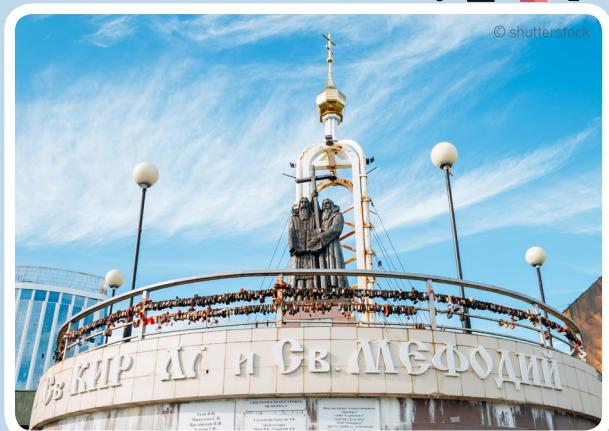
한국과의 시차 +1시간

소개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유럽 여행지라 3박 4일 짧은 휴가시즌에 맞춰 떠나기 좋다. 동양 속 유럽이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인 분위기와 러시아 특유의 전통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유럽과 달리 물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시간과 비용이 여유롭지 않을 때도 여행하는 데 큰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 도시의 면적이 넓지 않는 작은 항만도시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느끼는 도보 여행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특징이다. 블라디보스톡의 중심인 아르바트 거리는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데, 아르바트거리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여름에는 다채로운 시즌 축제와 행사가 열리니 천천히 둘러보면서 동양의 유럽에 흥뻑 취해보자. 짧은 휴가의 아쉬움을 달랠 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방문한다면 올 여름, 선물 같은 계절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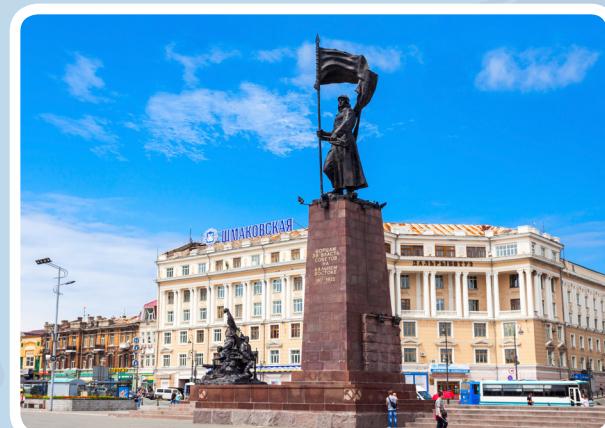
아르바트거리

러시아 청년들의 활기를 담백 담아낸 짧음의 거리다. 거리에 전시된 예술가들의 그림 작품과 건물 외벽에 꾸며진 수레바퀴, 캐릭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러시아 전통복을 입고 거리 순회 퍼포먼스를 펼치는 공연팀도 만날 수 있으니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유명한 레스토랑이며 카페, 공방도 이곳에 몰려 있다.



독수리전망대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높은 산 '오들리노예 그네즈도산'에 위치한다. 블라디보스톡의 곳곳을 살펴보고 난 뒤 해가 져 버렸다면 저녁 풍경을 보러 전망대로 향하는 걸 추천한다. 낮과 밤, 명소 하나 하나와 도시 전체를 비교하며 서로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된다. 해발고도가 높은 만큼 '푸니쿨리'라는 케이블카 이용을 추천한다.



혁명 광장

혁명 광장은 러시아 혁명을 위해 희생한 병사들의 추모탑이 세워진 곳이다. 중요 국경일에 이곳에서 행사가 열린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시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휴식처가 된다. 매주 토요일이면 재래시장이 열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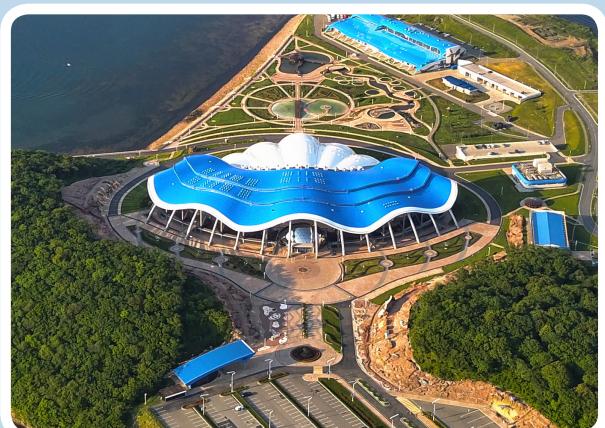
개선문

개선문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인과 함께라면 로맨틱한 설렘을 품고 꼭 들려 볼 명소다. 크고 웅장한 파리의 개선문과 달리 크기가 약 중맞으며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해양공원

아르바트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름에서 드러나듯 바다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말 타기 체험, 아쿠아리움 관람, 놀이기구 탑승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앞바다에서 현지인들이 낚시 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수산시장에 들러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면 블라디보스톡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된다.



프리모스키 수족관

도보 여행을 충분히 했다면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섬에 있는 프리모스키 수족관에 들러 보자. 해양과학관, 해양미술관, 식물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공간에서 해양생물을 알아 가고 관찰하는 즐거움을 얻는다. 해양생물 모형과 멀티미디어 기기 등도 있으니 직접 만지고 체험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영어회화 표현

길 찾을 때 유용한 영어 표현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은 어디에 있나요?

Go straight ahead.

앞으로 곧장 걸어가세요.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

Would you mind taking me there?

괜찮으시다면,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I'm going in the same direction. Let's go together.

저도 방향이 같아요. 같이 가요.

Excuse me. Is this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실례지만, 지하철역까지 이 길로 가면 되나요?

I'm sorry, I don't know.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몰라요.

What is the fastest way to get there?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Taking a taxi would be the fastest.

택시가 가장 빨라요.

It's in the opposite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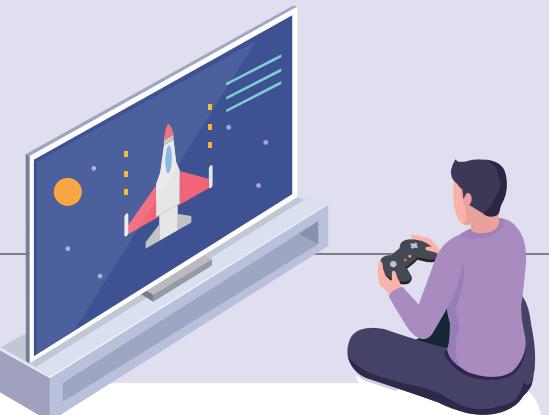
반대 방향이에요.

You took the wrong way.

길을 잘못 들었네요.

실력이 엄청 좋은 사람(고인물) &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자만주)

신조어 '고인물'과 '자만주' 알아보기



고인물



용어 해석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로 게임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뜻한다. 고여 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물을 말하므로, 하나의 게임을 굉장히 오래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현재 이 말은 어느 게임의 고수를 일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야를 막론하고 사용된다. 특히 각 분야에서 놀라우리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고인물을 넘어 해골물, 썩은물, 석유 등으로 불린다.



전문가 용어 진단

우리 속담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계발을 해서 성장해야지 지금에 안주하면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말이다. 이때 고인 물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 온라인 게임에서 파생된 '고인물'은 합성어로 쓰여 속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 분야에 오래 머물면 해당 분야를 정복하게 되고 자신만의 방식과 노하우를 지니게 된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자신의 영역과 세계를 넓히는 것만큼 한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여 이름을 알리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게임에서 고인물이라 불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으로 난이도 높은 게임을 섭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어 실력을 쌓는 이들도 개성 있는 장기를 보유한다. 그 예로 취미생활로 즐기는 스케이트보드를 완벽히 익혀 휘황찬란한 묘기를 부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한 분야를 습득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의미이다.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 속담과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채 널리 사용된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하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만주



용어 해석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의 줄임말이다. 소개팅이나 미팅, 맞선으로 인연을 맺는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말로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다'의 줄임말인 인만주가 있다. 자만주는 연애하고 싶다는 이유로 일부러 모르는 사람과데이트 하는 대신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는 연애 성향을 말한다. 서서히 알아 가며 친해진 주변 사람과 연애하거나 운명 같은 만남을 꿈꾸는 이들이 자만주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용어 진단

취업과 연애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취업만큼 연애는 어렵고 연애는 직장생활만큼이나 힘들다는 게 20대 청년들의 말이다. 여유가 없어 집과 회사를 오가는 게 하루 일과의 끝인 이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 일부러 꾸미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소개팅을 하며 꿀맛 같은 주말 휴식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굳이 자신에 대해 이리쿵저리쿵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다.

흔히 자만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연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 깊이 알고 있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받아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2030세대에게는 연애가 취업만큼 힘들고 연애를 하더라도 일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과의 연애, 자연스러운 만남이 필요하기 마련. 숱한 연애와 이별을 거친 이들은 자만주를 추구하며 마음을 편히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상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7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며,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라마단 종료 기념 11만 명 감형… 교도소 식비 45억 원 절감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여 11만 2,500명 이상의 수형자를 감형하였다. 현지 언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형으로 수용 인원이 줄어 549억 루피아(한화 약 45억 4,000만 원) 상당의 식비가 절감된다. 인도네시아 교정 당국인 법무인권부는 수용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이슬람교도 가운데 모범수를 감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테러나 안보 위협, 부패, 반인권 범죄, 마약사범의 경우 감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대상자에게는 최소 15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감형되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라 잔여 형기가 모두 사라진 517명의 수형자는 출소하였다.

인도네시아 교정 당국 관계자는 “특별감형제도가 수형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바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회로 돌아가 다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과테말라, 교도소 내 총격전으로 최소 7명 사망

과테말라는 5월 7일 과테말라 프리아하네스 시에 있는 파본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과테말라 교도소 대변인은 “경찰특공대 등 보안군이 이미 진입해서 중앙 통제권을 되찾았다”며 “사망한 수용자 수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것만 7명이며, 이는 추정치”라고 발표하였다. 카밀로 길베르토 모랄레스 과테말라교도소장은 이번 총격 발생이 수용자들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였다. 그는 현지 언론 TN23 방송을 통하여 “사전 정보에 따르면 만취 상태의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보고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파본교도소는 수감자 4,1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이곳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14명이 숨진 바 있다.



파라과이, 교도소 수용 중인 브라질 범죄조직원들 추방

파라과이가 자국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브라질 대형 범죄조직원들을 대거 추방할 예정이다. 브라질 범죄조직원들이 교도소 내에서 파라과이 수용자들과 충돌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라과이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수용자 가운데 400여 명이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 상당수는 교도소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라과이는 지난해에도 100명 가까운 브라질 국적의 수용자를 추방하였다.

브라질의 대형 범죄조직원들은 파라과이를 마리화나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 파라과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브라질 범죄조직원들은 파라과이에서 마리화나를 생산하고 브라질로 유입하다 국경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파라과이는 교도소 내 마약 밀반입 예방과 수용질서 안정을 위해 브라질 범죄조직원들을 추방한다.



미국, 전국 이민구치소 수용자 역대 최고 기록

미국의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수가 약 5만 2,4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경을 넘는 중남미인들이 급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구치소 수용자 수가 평균 3만 5,000여 명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설과 비교하면 약 1만 7,000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월까지만 해도 이민구치소 수용자 하루 평균 수치는 4만 6,873명이었으나 최근 한 달 사이 그 수가 빠르게 불어났다며 지적하였다.

문제는 이 수용 인원이 미국 연방 의회가 정한 이민구치소 법정 수용 상한선인 4만 5,000명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이민 당국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이민구치소 수용자를 법정 수용 상한선 밑으로 맞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은 국경에서 붙잡히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이민자를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악기 듣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프로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

너른 광장에 자리한 무대, 교정공무원들이 기타줄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틱기며 조율하고 색소폰을 불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노래와 연주를 시작하는 품이 꽤 여유롭다. 많은 관중들의 시선이 느껴져 긴장할 법도 한데 거침없이 노래 부르며 순식간에 무대를 장악한다. 교정공무원들의 카리스마와 그루브에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반전 매력에 흘뻑 빠지는 무대

“서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함께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정말 많이 떨리네요.”

광장을 가르는 타악 연희단이 사물놀이 판굿을 마치고 사라지자 본 무대가 열렸다. 군산교도소 음악동호회 ‘워라밸’ 팀이 줄 지어 선 채 색소폰을 불며 화음을 만들어 간다. 쑥스럽게 인사하며 무대에 올랐던 조금 전과 달리 연주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 꽤 능숙하다. 중장년의 교정공무원들은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 매너를 뽐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무대의 주인공이자 프로 연주가라는 듯이. 이들은 제복 대신 폐도라 와 하얀 셔츠, 검정 바지로 의상을 맞춰 입고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다. 그 모습에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팀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무대가 열린 곳은 전라북도 군산의 은파물빛다리 야외공연장. 이곳은 군산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로 알려진 은파호수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운동이나 데이트를 하러 오거나 반려동물과 산책하던 시민들이 광장 앞에 멈춰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본다. 그중에는 자전거 여행을 하던 무리도 있다. 한 자전거 여행객이 잠깐 휴식을 취하며 공연을 구경하다가 흥얼거린다.

“마침 다리가 아파 피곤하던 참에 공연을 보면서 쉬고 있어요. 호수가 있는 공원에서 공연까지 열리니 풍경이 정말 그림 같네요.”

이어진 무대에서도 저마다 다른 악기로 특색과 개성을 선보인다. 큰 무대에 처음 서 본다는 원주교도소 ‘어울림’ 팀은 음에 맞춰 리듬을 타고 자유롭게 손짓한다. 고혹적인 목소리로 관람객을 사로잡다가도 시원시원한 고음을 발사한다. 그 야말로 반전 매력이다.

“프로필에는 큰 무대가 처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 같네요.”

사회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들의 음색과 매력에 빠져 절로 감탄하였다.

전국에서 온 18개팀, 제주교도소 최초 공연

전국교도관음악회는 2007년 춘천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전국교도관음악동호인연합회가 주최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전국교도관음악회는 교정공무원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다. 그동안 쌓인 근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1년 동안 음악동호회 활동을 하며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며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간의 노력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감도 키운다.

전국교도관음악동호인연합회 유태오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교정행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교정공무원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우리 교정공무원들도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었으면 하네요.”

이번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는 군산교도소 위라밸 음악동 호회가 주관하였으며, 23개 교도소에서 전국교도관음악동 호회 18개 팀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제주교도소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다. 제주교도소 ‘모드릭’ 팀은 파워풀한 고음으로 ‘이게 바로 제주교도소의 위엄’임을 자랑했다. “즐길 준비 되었습니까?”, “달려 보시겠습니까?”라며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이 제법이다.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제주교도소의 자신감 넘치는 흥과 실력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시민과 만들어낸 최고의 하모니

다음 공연이 진행되기 전 막간을 이용해 찾아와 준 시민들을 위해 선물을 증정한다. 김, 세제, 쌀,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마련되었다. 작은 힘에 들어 있는 종이를 꺼내 번호를 외쳐 추첨하거나 큰 호응을 보여준 시민을 직접 무대로 부른다.

“공연이 끝나는 9시까지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손 흔들어 보세요.” “난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지지 않는 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무대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객석이 다양

한 관람객으로 채워진다. 휠체어를 탄 채 남편과 함께 온 할머니와 꽂다발을 품에 꼭 안고 가족의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멈춰 선 아이들도 보인다.

관람객들은 무대의 분위기에 따라 앙코르를 외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천천히 흔들었다. 특별출연한 박문원 전 군산교도소 직원은 능청스럽게 앙코르 요청을 이끌어낸다. 한 곡이 끝났는데 앙코르 요청이 안 들린다면 자리를 뜬 것. 그 말에 바로 객석에서 “앙코르, 앙코르”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특별출연한 승성신 전 교정본부장이 통기타를 치며 ‘빗속에서 둘이서’를 노래할 때에는 관람객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 좋은 분위기를 놓칠 리 없다. “귀에 익은 노래가 나와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셨어요. 잔잔한 음악과 따듯한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화음이 더해지니 더 할 나위 없네요.”

3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한 분위기와 선선한 날씨는 공연의 깊이를 더한다. 교정공무원들은 조명이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소통한다.

전국교도관음악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들이 여러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음악 실력을 뽐낸 하루였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교정공무원들이 무대에서 재능을 펼치는 날. 그 날이 이어져 교정공무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전국교도관음악회와 함께한 교정공무원과 국민들



군산교도소 소장 김영식

교도관음악회에 관심이 많아 해마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공연팀도 늘어나는 걸 확인하니 뜻깊습니다. 작년에 군산교도소로 발령받아 전라북도에서도 교도관음악회를 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이에요.



안동교도소 교사 조명환

크래쉬(CRASH)의 ‘My worst enemy’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랙밴드를 만들어 악기를 다룬 건 7~8년 전 교정공무원이 되면서부터예요. 3년 만에 가족들이 제 무대를 보러 왔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들도 벌써 많이 컸네요. 가족들 앞에서 3년 전보다 늘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춘천교도소 교감 김전수

2007년에 춘천에서 제1회 전국교도관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음악을 도입하기 위해서죠. 시작할 때만 해도 음악 하는 이들이 수십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천 명이 넘어요.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대진치가 매년 이어졌으면 합니다.



군산 수송동 주민
유재용 / 55세

저녁이면 은파호수공원에서 자주 운동을 합니다. 오늘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리허설 할 때부터 와서 구경했어요. 지방에는 문화공연이 흔치 않아서 팀을 이룬 공연을 보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문화행사를 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또 언제 이런 무대를 구경하겠어요. 본 무대는 리허설보다 더 좋겠죠?



군산 미룡동 주민
채하영 / 27세

아버지가 교정공무원이라 연주하는 걸 보러 왔어요. 회사 친구랑 같이 구경하러 와서 그런지 더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집에서 연주하는 걸 많이 봤는데 마침 동네에서 음악회가 열려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편하게 볼 수 있었네요. 역시 무대에서 연주하는 게 더 멋있어요. 아빠 파이팅, 사랑해요!



국민 mini
인터뷰



군산 미룡동 주민
서대금 / 41세

날씨도 정말 시원하고 좋은 음악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남편이 교정공무원인데 따로 음악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아 이번에 처음 음악회를 보러 왔어요. 무대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당히 무대 위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는 게 느껴져요. 무대 웰리티도 상당히 높아서 만족해요.

호기롭게 떠난 일본, 여행 이야기에 밤 지새운 날들

“우리 진짜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자!”

첫 시작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하였다. 다들 솔기운이 얼큰하게 올라올 정도로 몇 잔을 들이킨 후에 이런저런 기분 좋은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나눌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외에 가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즐겨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또한 호기로운 말뿐이라는 것을. 그만큼 직장 동료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동의했지만 아무도 정말로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우리 부엔 히어로가 있었다. 해외여행에 박식하고 넘치는 열정을 가진 유순선 교사가 바로 우리들의 히어로였다. 때는 5월 1일,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여유롭게 만화책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5월 12일 야근 마치고 다음 야근 5월 15일까지 3박 4일로 일본 오사카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너무나 솔깃하였다. 그러나 곧장 오케이 콜을 외치기엔 가족들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와이프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 3박 4일 일본 갔다 와도 돼?” “누구랑 가는데?” “우리 부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가는 거야.” “선물 사울 거야?”



“선물? 응, 사울게.” “그럼 갔다 와.”

지금 생각을 해 보아도 너무나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다. 와이프도 서울구치소에서 야근하라 초등학생 애들 돌보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잘 놀다 오라고 웃으며 허락을 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고맙다는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여행 생각에 들떠 하지 못한 것 같다.

다음 날 당직 계장님과 배치 주임님께 말씀드리고 당무 근무일 하루 연가 사용 신청을 하였다. 여행 전 날 야근하기 전 우리는 모두 모여 짐을 정리하고 일정 회의를 하였으며 당일에는 야근을 마치자마자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동료들 모두 신나는 모양새였다.

비행기에 탄 지 1시간 30분 만에 일본 오사카공항에 도착하였다. 전철 안팎의 풍경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오사카 시내에 들어서자 일본에 왔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하였다. 숙소로 가는 도중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 차이를 확인하게 느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을 찾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각자가 따로따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도 일곱 명이라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만한 곳은 많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일본의 개인주의적 혼자문화를 식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서 짐을 푼 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였다. 숙소 바로 근처에 있던 도톤보리를 관광하고 오사카항으로 출발하였다. 오사카는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인구 250만 명 정도의 대도시다. 우리는 대관람차를 타고 오사카항 전체를 구경하였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바로 앞에는 아주 유명한 오사카 수족관이 보였다. 시내 쪽으로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보였고, 300m 전망대 아베노하루



카스 건물도 눈에 들어왔다.

일본은 생각보다 교통비가 매우 비싸 모든 관광코스를 전철과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신기하고 많은 볼거리가 있어 좋기도 했지만, 곧 다리가 아파 와서 아쉬움을 뒤로하였다. 숙소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녁 12시가 되어 있었다. 일곱 명이서 방 2개를 빌려서 같이 잤다. 일본에서 느낀 것은 좁은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다. 화장실, 샤워장, 엘리베이터 등 모든 것이 너무 작았다. 이런 것이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나 보다. 작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좁은 장소에 잘 꾸며놓아서 아늑한 느낌을 주긴 했지만, 역시나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음날 숙소를 나서 오사카성으로 향하였다. 오사카성은 과거 우리나라의 원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썼던 현수막을 이곳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오사카성 곳곳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웅시한 동상이나 그림, 물건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어제저녁의 아쉬움이 남아 우리들은 다시 오사카항을 찾았다. 오사카 수족관에 가 보기 위해서다. 오사카 수족관은 땅위에서 물속을 바라보고 곧 그 물속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신기한 해양생물이 정말 많아 놀라웠다. 큼직한 고래상어를 보고, 상어와 대형 가오리를 만져 볼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국내 어느 수족관에서도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넓은 수족관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피로감이 심해졌을 때쯤 온천을 찾았다. 소라니와온천은 오사카에서 제법 유명한

온천인데 우리나라의 짐질방과 매우 흡사하였다. 역시나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다. 여행 중간에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아 다음에도 꼭 오고 싶었다.

셋째날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오사카 여행 일정의 대장정을 장식하였다. 테마놀이공원인 이곳은 규모는 작은 대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감성을 잘 표현해 놓았다. 중간에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였다. 갑자기 공연장 안으로 비행기가 떨어지는가 하면, 건물 전체가 폭발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놀면서 유니버설스튜디오의 명성과 대단함을 느꼈다.

숙소로 가는 길에는 마지막 날인 만큼 마트에서 맥주와 이것저것 특이한 먹거리를 잔뜩 사들고 숙소로 돌아와 여행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낭만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비록 3박 4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오사카의 명소와 맛집을 섭렵하여 후회가 없으며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 사실 일곱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해외여행을 가기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불편한 점이 많다. 관광과 식사 때마다 일곱 명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어떤 누군가는 불편하지만 모두의 뜻에 따라야 했던 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주변의 소중한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직장에서의 행복을 만들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 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뒤늦은 죄책감, 오늘도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선택에 의한 결과를 감내하고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도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얘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맞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될 뿐 욕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주위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것도, 돈을 준 것도 다 저의 선택이었고 형으로서 동생을 끝까지 잘 다독이지 못한 것도, 항상 생각으로만 이해해 주겠다고 했지 진정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아닌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저의 탓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번 꿈에서 피해자가 나타나 저를 해칠 듯이 쫓아 왔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꾸었던 꿈에서는 예전에 서로 좋았던 그 모습으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득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에게 펑펑 울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저에게 괜찮다며 대신 신발 하나만 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되겠냐고 했더니 그거면 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잠에서 깨었는데 슬픈 감정이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사죄를 할 수 있어 한편으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의도를 가졌던 결국 저의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생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께 용서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 두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지난날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만 생각하며 살

‘교정 희망의 백일장 Ⅱ’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후회를 해도 피해자가 돌아온다거나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수백 번, 수천 번도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후회할 시간에 어떻게 잘 해쳐 나갈 것인지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죄를 잊는다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반성을 기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떨 땐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는 것이 자식을 잃고 나날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실 피해자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보다 여기서 잘 지내고 훗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평생 사죄하며 사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 살아야 여유가 생길 것이고 여유가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사죄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피해자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무엇이든 하면서 평생 사죄드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쉽지 않겠지만 꼭 제가 평생 사죄드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무엇이든 다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 두고 항상 반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또한 저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안고 계실 저의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관련 착안점(上)



- I. 기초조사, 조사전체를 좌우한다!
- II. 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유형
- III. 기초조사 관련 쟁점 및 판례의 분석
- IV. 신속·적법한 기초조사를 위한 착안점
- V. 기초조사 관련 기타 쟁점에 대한 검토
- VI. 맛말 : 사건은 살아 있는 생물이다!



I. 기초조사, 조사전체를 좌우한다!

수용동근무자의 하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또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인지하여 초동 대처를 슬기롭게 하며 수용관리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수용자 관리 감독을 중간히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용관리팀장 역시 수용자들의 징벌대상행위를 비롯한 규율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자들의 상시적인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용동근무자와 수용관리팀장 등 중간관리자가 규율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의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수용자처우를 전제로 하는 교정기관 전체에 수용질서 확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수용자 인권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접점에 수용자규율위반행위 처리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만치 않은 규율위반행위를 처리하는데 수용관리팀장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기초조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조사의 충실성, 옳은 방향성, 정확성 등이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전반의 조사 전체를 사실상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조사 관련 기본규정의 검토, 하급심 판례이지만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초조사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의

정도,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세 가지 처리유형, 신속하면서도 적법한 기초조사를 위한 착안점 및 기초조사 과정의 쟁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유형

1. 조사 관련 규정 체계의 검토

1) 징벌대상자에 대한 분리, 처우제한 및 조사 시 준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은 증거인멸,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의 경우 징벌대상자에 대해 분리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징벌대상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존재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 등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에서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교도관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하 '수계지침')' 제154조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초기진압, 초동조치 시의 주의 사항을 규정하고, 동 지침 제221조~제22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경우 별도 제13호 서식(수용자 조사부)에 기록할 것을 규정하는 등 수용자 조사 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조사 시 준수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2)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에 대한 정의와 조사기간의 범위(10일 이내) 및 그에 대한 연장(1회 한정, 7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²⁾

3)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상관에 보고의무

한편 '교도관직무규칙' 제37조는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 자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교정직교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계지침 제2조 제2호는 '엄중관리대상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훈계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징벌대상자에 대한 처리 : 징벌위원회 회부, 무혐의 통고, 훈계, 징벌 위원회 회부보류, 조사종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입각한 처리를 징벌위원회 회부, 무혐의 통고,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보류, 조사종결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수계지침 제221조 제3항은 수용기록부에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미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수계지침 제203조는 '삼진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5) 징벌대상수용자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 기준

수계지침 제76조는 징벌대상행위의 형사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규정하고, 동 지침 제155조는 수용자 상호 간 폭행사고의 경우 상처의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징벌 외에도 형사입건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둔다. 상처의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에도 신입식이나, 상습적 폭행 등의 경우에도 형사입건을 하도록 하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수용관리팀장'의 기초조사 후 가능한 처리 유형

엄중관리대상자의 규율위반행위⁴⁾ 이외에 일반수용자의 징벌대상

2)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조사기간)

-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 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계지침 제76조(형사입건)

- ① 수용자가 법 제107조 제1호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의 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 ② 수용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은 법 제3조의 범위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전반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송치하지 않고 직접 검찰청 등에 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위 적발 시 조치 가능한 것으로는 근무자(수용동근무자, 수용관리팀 근무자, 기동순찰팀 근무자 혹은 수용관리팀장)는 현장훈계, 스티커 발부, 조사팀으로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식적 처리절차 편입을 통한 조사수용

엄중관리대상자의 규율위반행위 이외에 일반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시 조치 가능한 것으로는 징벌대상행위가 경미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근무자(수용동근무자, 수용관리팀근무자, 기동순찰팀 근무자 혹은 수용관리팀장)는 현장훈계, 스티커 발부(규율위반 적발 보고서)를 통한 간이처리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해당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종료한 다음 해당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을 한 후 조사팀으로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수용자를 조사팀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수계지침 제226조에 근거하여 동정관찰부를 작성하고 '수용자 조사부'에 등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2) 경미사안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의 활용 :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 거실 내 수용자복 틸의 등 복장불량, 거실 내 허가 없이 모포를 깔고 누워 있다가 수용동근무자에게 지적받은 사실, 거실 내 화장실 투명 아크릴 벽에 여자사진이 나와 있는 신문종이를 불법 부착하여 거실 내 화장실의 동정 관찰을 곤란하게 한 사실 등 경미한 규율위반행위가 발생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율위반 적발보고서(주로 기동순찰팀이 시찰 작성)'를 발부하는 간이처리절차로 기능하는 삼진아웃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⁵⁾

3) 전환적 처리(다이버전)의 일환으로서 경미사안에 대한 '현장훈계'의 활용

단순 말싸움이나 경미한 지시불이행 등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리절차인 조사수용을 지양하고 '현장훈계'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현장훈계는 형사절차에서 경미사건의 경우 다이버전(DIVERSION)으로 처리하여 비형사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교정실무에 응용하는 비정별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장훈계의 좋은 점(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경미사건에 대한 공식적 조사수용보다도 사건의 신속한 종결로 특히 야간의 경우나 업무가 폭주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고, ② 수용관리팀장의 바쁜 일과에서 일일이 '조사수용'을 위한 동정관찰 보고시찰'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③ 진정으

4) 수계지침 제2조 제2호에 입각하여 엄중관리대상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임의로 훈계조치 하여서는 안 되고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교정기관에 따라서는 기동순찰팀장이 아닌 관할 '수용관리팀장(관구계장)'이 동정 관찰보고 시찰을 쓰는 곳도 존재하고, '수용관리팀장'이 동정관찰보고 시찰 작성 후 전자결재를 통하여 보안교장까지면 결재를 얻는 것으로 하는 교정기관도 존재한다.

로 반성하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처분의 낙인을 회피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④ 조사수용이 의미 없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 관규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법의 하나로서 업무폭주로 늘 사건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조사실 업무의 경감에 기여하는 측면, ⑤ 현장훈계가 수용질서 확립의 한 모습으로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즉 수용관리팀장실에 해당 수용자를 동행하여 현장훈계를 위한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규율위반에 대해 방지하기보다는 일정 절차를 경유하는 등의 현장훈계는 수용자들에게 일정부분 경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현장훈계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뿐 아니라 문제점도 없지 않고 실제 교정현장근무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현장훈계를 활용하는 경우의 전제 조건, 주의할 점, 현장훈계 후의 보고 등 처리 방법 등을 숙지하고 현장훈계 활용에 있어 시중하게 접근한 필요가 있다.

III. 기초조사 관련 쟁점 및 판례의 분석

1. 문제의 소재

수용관리팀장은 수용관리팀 내 직원 등 보조인력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수용자들의 징벌대상행위와 직면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여 소장결재까지의 대기시간 소요, 문서작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항시적으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다양한 당사자가 등장하는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하는지, 수용관리팀장의 주의의무의 정도, 초동조사의 적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가 생점으로 부각된다.

⁶⁾ 법무부 교정본부(서울구치소), 2019, 교정조사실무, 109~110쪽

) 법무샘-협업-학습동아리-KCSP(KOREA CORRECTION SPECIAL JUDICIAL POLICE 마스터 : 교원 협상권) 탈재 자료 2019.5.14. 검색 편집 사용

3.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공식적 조사과정의 흐름⁶⁾⁷⁾

조사과정의 흐름	주요 내용	비고
징벌대상행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근무자 보고(참고인 등 수용자 신고, 근무자 동정관찰 중 적발 등) 	
기초조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관련자(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참고인 등을 확보 사건 관련자 의료과 동행진료 및 외부병원 후송 치료 증거물 확보 : 상해부위 사진 촬영, 폭행 시 사용한 흉기·물건 확보 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관련자 자술서 확보 피해사실 확인 : 진단서 또는 폭행부위 사진 확보, 사진 원본파일 조사실 송부(형사송치 시 사용) 관련자 조사부 등재(수용자 조사부 등재) 동정관찰보고(시찰) 작성 	※ 피의자 출소여부 등 확인 중점조사 시 사인의 경증에 따라 구속 및 사건송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조사자는 수용자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을 신속히 조사계에 알리고 인계
중점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의 적용법률을 검토 필요시 범죄인지 보고 필요시 추가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및 필요시 피의자 신문조서 CCTV영상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 승치필요 여부 확인 참고인(목격자)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조사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간 내 조사종료 혐의 없음,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회부보류, 조사종결 조사결과보고를 통해 소장의 징벌요구, 징벌위원회 소집, 필요시 추가송치 조사결과보고 작성 	
징벌위원회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요구서류 작성 위원장 :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 징벌은 의결로 정함 징벌대상자의 출석통지 	
징벌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 사실여부, 징벌의 종류와 내용, '산입기간' 등 심의·의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벌의결서 작성 · 징벌회의록 작성 	
징벌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은 소장이 집행 징벌집행통지서와 징벌의결서(부본)를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제한 시 그 내용을 가족에게 통지 – 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음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징벌집행 시 금치를 우선, 같은 종류는 긴 것부터 집행 필요시 소장이 징벌의 감경 또는 면제 	
양형자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결수용자의 경우 검찰청 및 법원에 통보(임의적) 	

2. 하급심 판례 분석 : '폭행의 피해자'를 '싸움의 당사자'로 착오한 기초조사의 문제

1) 사실관계

“2001.10.9. 18:00 ○○구치소 1동 중층 11실에서 원고가 구매물 신청을 한 것으로 오인한 동료 수용자 김○○가 원고에게 ‘죽여 버린다, 자꾸 말대꾸하면 눈을 파버린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 던지고,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원고가 위 김○○를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 자신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김○○와 원고를 싸움의 당사자로 조사수용하는 동태보고를 하였다.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당시 존재하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는 치우제한을 실시하고, 7일 동안 조사수용기간 동안 조사실에서 본 조사를 받았지만 김○○와 단순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훈계처분하였을 뿐 별다른 징벌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⁸⁾⁽⁹⁾

2) 쟁점별 재판부의 판단

① '폭행의 피해자'를 싸움의 당사자로 오인한 초동조사 및 조사수용의 오류

당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김○○와 싸움을 한 당사자이고, 구매물을 허락 없이 대리 신청한 징벌협의가 인정되어 조사수용한 것이므로 조사수용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폭행피해자로 징벌협의자가 아닌 원고를 조사실에 수용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위법한 조사수용에 따른 접견금지 등의 처우 제한 문제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원고를 7일간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하급심 판례 분석 : 다른 수용자들의 '무고'로 인한 조사 수용 및 징벌집행의 문제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으나 위 징벌처분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원고를 처

8) 법무부 분류심사과, 교정판례집(상), 대구지방법원 2007.5.16. 2006나-15517 [손해배상기] 659쪽

9) 법무부 교정본부, 2019, 교정실무 1, 364쪽 참조

별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는 ① ‘징벌사유’가 애초에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같은 거실 목격자들의 허위 진술만을 토대로 잘못된 조사를 진행하여 징벌처분을 내렸으며, ② 원고의 징벌집행이 종료하기 전에 위 사건의 목격자 중 1명의 수용자가 진술을 변복하여 피고 소속 조사실 공무원들은 원고의 징벌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징벌집행 정지 등) 원고가 45일간의 위법한 징벌집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이다.¹⁰⁾

2) 장점별 재판부의 판단

① 과려 범리

여러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여부,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¹⁾

② 징벌처분의 근거가 된 '초동조사 및 중점조사'의 적정성 여부

다른 수용자들의 무고로 인한 조사수용 및 징벌집행 사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징벌사유 발생 당시 윤○○, 하○○, 양○○ 등을 조사(수용관리팀자의 기초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징벌처분 직전인 2015.8.11. 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목격자 10여 명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관하여 조사(조사실의 중점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윤○○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이 사건 징벌사유에 합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된 조사의 경과와 내용은 징벌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수용관리팀장의 초동조사 및 조사실의 본 조사(증

10) 서울시지방교정청, 2018년 [교정관련 소송사례 해설집], “다른 수용자들의 무고로 인한 짓벌집행(이인지법법원 2017-163934)”, 86쪽

11)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다 11297
판결 등

점조사)가 적정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징벌처분 역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③ '징벌집행의 정지'할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

조사과정의 진술하였던 목격자가 추후에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진술을 번복한 목격자가 진술을 재차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진술을 번복한 목격자가 1명인데 반해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수용자는 3명이었으므로 오히려 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었던 점, 고충처리 사건의 증가와 인적·물적 여건의 제한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징벌처분을 하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벌집행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의 시사점

1) 기초조사 시 편견, 선입견으로 징벌혐의 예단 자제

반목관계에 있는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피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다른 거실로 몰아내고자 거실 내 특정 수용자를 지목하여 그에게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용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초동조사를 담당하는 수용관리팀장 및 조사실 근무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징벌전력을 다수 존재하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편견과 선입견으로 징벌혐의를 예단하거나 선불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2)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준수

위의 두 번째 사례에서 징벌사유 발생 당일 윤○○, 하○○, 양○○ 등을 초동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징벌처분 직전인 2015.8.11. 까지 원고를 비롯한 사건 목격자 10여 명을 상대로 이 사건 징벌사유에 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 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윤○○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징벌사유에 합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된 조사의 경과와 내용은 이 사건 징벌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첫 번째 사례에서 재판부는 "폭행피해자로 징벌혐의자가 아닌 원고를 조사실에 수용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초동조사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용관리팀장이 시간에 쫓기고 초동조사를 보조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사에 매번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초동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소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목격자 조사 시 무고죄 성립 및 징벌가능성 안내 필요

징벌혐의에 대해 초동조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엇갈리거나 목격자

간 담합의 혼격을 감지한 경우 등에는 목격자 등 참고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형집행법상 금치 등의 징벌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고의에 의한 진술왜곡이나 사건왜곡을 시도하는 참고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IV. 신속·적법한 기초조사를 위한 착안점

수용자 간 폭행이나 싸움의 경우 초동조사는 규율위반행위(싸움)의 인지, 규율위반행위 대상 수용자에 대한 상호 분리, 참고인(거실 내 수용자, 수용동청소부 등) 조사,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상처부위 사진 촬영, CCTV자료 등 영상자료 분석, 의료과 진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당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목격자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의 경우 혹은 수용자 상호 간 싸움의 경우를 상정하여 초동조사 시의 주의할 점이나 착안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수용동근무자'의 초동 대처

수용동근무자가 처음으로 수용자 간 싸움을 인지한 경우 ① '수용동청소부'를 대동(의도적인 목격자 만들기)하고 싸움 현장에 즉각적인 도착, ② 싸움의 즉각적 중지 지시(중지하지 않을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기증처벌의 근거가 됨) ③ TRS를 이용하여 싸움사실을 보고 및 지원 요청, ④ 즉시 출실 지시 및 싸움 당사자 분리 등을 거의 동시에으로 신속하게 시행한 후 ⑤ 해당 싸움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의 수용동근무자나 수용관리팀장의 교육 내용, 싸움 인지 경위, 싸움현장에 도착 후 조치 및 지시 내용, TRS를 이용하여 싸움 사실을 보고 및 지원 요청 사항 등에 관하여 시간 순서대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용관리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한다.

2. '수용관리팀장'의 기초조사 시 착안점

수용관리팀장은 싸움현장에 도착하여 싸움이나 지시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즉시 싸움의 중지 지시를 하고 거실 내에 있는 싸움 당사자들을 거실 밖으로 출실시킴과 동시에 분리하여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동대나 수용관리팀 직원들과 더불어 싸움 당사자, 목격자(거실 내 수용자, 수용동청소부 등) 등에 대한 자술서를 받고, 상처부위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수용동근무자의

근무보고서, 자술서,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동정관찰보고 시찰 작성 등 관련 싸움 사건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한다.

3. 증거수집 : 자술서 받기

관련자에 대한 자술서 받기는 신속, 정확한 동정관찰보고 시찰 작성의 성패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수집행위로서 초동조사 시 자술서를 어느 정도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받아 두어야만 차후 분란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고, 조사수용의 합법성을 담보하게 되고 차후 조사실에서 중점조사가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동정관찰보고 시찰을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자술서 작성은 수용자 혼자쓰라고 맡겨 두면 두서가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니 자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수용관리팀장이나 수용관리팀원이 싸움의 당사자 그리고 목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싸움 발생 시점, 장소 그리고 일정 정도의 기준과 생김(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안내하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앞의 두 번째 판례[서울지방교정청, 2018년 (교정관련 소송사례 해설집), "다른 수용자들의 무고로 인한 징벌집행(인천지방법원 2017나63934)", 86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치게 완벽을 기하여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연이어 이어지는 다른 사건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므로 초동조사과정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조사수용하기에 무난할 정도의 증거 수집과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었다면 차후의 조사실에서보다 자세한 중점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초동조사과정이 지난치게 세밀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조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 자술서 받기의 기초 : 육하원칙의 적용¹²⁾

	구체적 예시	비고
1. 주체(누가)	① '본인은, 또는 저는, 또는 홍길동은'으로 시작 또는 ② 본인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홍길동과…	
2. 언제(때, 일시)	① 2019.5.14.13:00경 ② (일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2019.5.14. 시간 미상경, 또는 ③ 2019.5월 중순 시간 미상경, 또는 2019.5월 중순 13:00경으로 표현	
3. 어디서(장소, 공간)	① 기관 1사하 12실에서 또는 ② 위탁 1사업장에서 등으로 표현	
4. 왜(원인·동기)	① 바둑을 두다가 본인이 한 수만 물려 달라고 했는데 홍길동이가 냉정하게 거절하는데 격분하여… 또는 ② 혼자 식기를 닦다가 혼자만 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홍길동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너 혼자 하라고 하여 화가 나서…	거절, 감정폭발, 격분
5. 무엇을(객체)	① 본인이 "야, 개새끼야 너하고 바둑 안 뛰"라고 욕을 하자 홍길동이도 본인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마다툼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싸우다가 본인이 주먹으로 홍길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홍길동이도 주먹으로 본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맞고 서로 싸운 사실이 있으며…	안면 폭행
6. 어떻게(수단·방법)	① 본인이 주먹으로 홍길동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린 후 근무자의 제지를 받고 수용관리팀실로 동행된 사실이 있기에 자술서를 제출합니다.	폭행도구, 주먹 이용 폭행

12) 심간택 교위(전주교도소 보안과), 2018.9.20. 법무생 지식행정 게시, "교정사고 별 자술서 받기 요령" 참조[2019.5.14. 21:00 법무생 지식행정 검색]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유도·검도·태권도 세 종목에 388명 출전

교정공무원은 수용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도를 통한 자기단련과 자기계발로 자신은 물론 수용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킨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이들이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기른 무도 기량을 한 자리에 뽐내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교정공무원들은 서로 화합하며 교정교화에 대한 의지를 또 한번 다진다.

가수 데노 노들의 멋진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자
무도대회

2019. 6. 28. [금]
법무연수원 체육관
법무부 교정본부

축

진행 순서
- 국민 의례
- 대회사
- 우승기 반환
- 선수대표 선서
- 계화 영상
- 식전 공연



박진감 가득한 페어플레이 경기

법무부 교정본부가 6월 28일 충청북도 진천의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에 처음 개최되어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행사이다. 선수로 참가한 교정공무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상무 정신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며 도전과 열정,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는 유도와 검도, 태권도 세 종목에 36개 교정시설의 52개 팀, 388명이 출전하였다. 경기를 치르는 참가 선수 외에도 응원단과 교정 가족들이 찾아와 관중석을 채웠다.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승기 반환식과 선수 대표의 선서식, 시범 공연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서울구치소(유도)와 대전교도소(검도), 안양교도소(태권도)는 우승기를 반환하였으며 선수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교정공무원들은 자기단련과 무도 수련 과정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해 왔다”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수형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관객의 함성과 응원이 더해지다

본 경기는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었다. 체육관을 세 공간으로 나누어 유도, 검도, 태권도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유도 부문에는 20개 기관에서 155명, 검도에는 24개 기관에서 174명, 태권도에는 8개 기관에서 59명이 출전하였다. 관중석은 팀의 선수가 나올 때마다 파이팅을 외치거나 응원봉을 힘차게 흔드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응원 행렬에 힘입어 참가 선수들은 더욱 좋은 성적을 냈다.

체육관을 찾은 관객들도 대회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제주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온 신경옥(54세) 씨는 경기 진행 방식과 구성이 짜임새 있어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다고 말한다.

“유도 경기에 나가는 제주교도소 분들을 응원하러 왔어요. 세 종목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회 구성이 짜임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른 경기를 연달아 볼 수 있어 좋네요. 또 응원팀이 홍을 돋우니 절로 신이 납니다.”

태권도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가 엎치락뒤치락하였다. 초반 2대 3의 점수를 14대 11로 역

전시키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유도 경기에서는 상대가 실수 한 틈을 타 공격을 가하거나, 엎어치기 하는 상대의 몸을 휘어 돌려 공격을 막아 내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검도 경기 또한 선수들이 시작과 동시에 둔탁한 죽도 소리를 내며 빠르게 치고 나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가 이어졌다. 선수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다가도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땀을 닦고 웃 매무새를 만지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승패보다는 격려와 배려가 빛나

기나 긴 경기 끝에 세 종목 결승전에 참가할 팀이 가려졌다. 결승전은 태권도, 검도, 유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태권도 결승전에서 부산교도소와 울산구치소는 거침없는 공격을 보여 주며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울산구치소는 첫 경기에서 승리한 기운을 이어 받아 상대 팀을 기선 제압하고 우승하였다. 검도 결승전과 유도 결승전도 집중력 높은 경기였다. 검도에는 순천교도소와 인천구치소가, 유도에는 서울구치소와 진주교도소가 참가하였다. 몸싸움도 살짝 있었으나 선수들은 사뿐한 발놀림과 재빠른 동작으로 중심을 잡았다. 관객

들은 점수가 뒤지고 있는 선수에게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계속해”라고 응원을 보냈다. 관객의 응원이 더해지자 승부는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달았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 손에 땀을 쥐는 경기 끝에 승리는 각각 인천구치소와 진주교도소에게 돌아갔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가득했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우승과 준우승, 장려상 팀은 트로피와 메달, 상금, 체력단련비품을 받았다. 그리고 각 종목에서 뛰어난 무도 기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지목되어 트로피, 상금과 함께 포상휴가를 받았다.

이 대회가 무엇보다 빛났던 건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 덕분이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실력 겨루기나 승패 결정이 아니라 교정 공무원 모두의 화합과 단합임을 알 수 있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경기 매너를 갖추면서도 떳떳하게 경기를 한 이들이 있었기에 열띤 응원을 펼친 교정 가족과 응원팀도 빛날 수 있었다. 70년간 이어 온 대회처럼 이날의 페어플레이 정신도 오랜 세월 교정공무원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란다.

태권도
부문

울산구치소 교사 안동일

“작년에 준우승을 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승 전력이 된다고 느껴 쉬는 날이나 퇴근 이후 팀원들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어 좋은 기분밖에 없어요. 서로 단합하고 땀 흘리며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우승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남은 일생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검도
부문

인천구치소 교사 강동혁

“마지막 주자였는데 앞에서 다른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서 부담 없이 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에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았습니다. 단지 승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있어 시간을 쪼개 연습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우승과 최우수선수 선정을 계기로 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유도
부문

진주교도소 교사 남규봉

“예선전에서 몸이 풀리지 않아 고전하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생겼네요. 첫 경기부터 박빙이었는데요. 저보다 체력과 기량이 더 뛰어난 분을 만나 한 게임, 한 게임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제 특기인 ‘허벅다리 후리기’ 기술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 뿌듯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정말 행복합니다.”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6월 13일과 14일에 진주교도소와 통영구치소를, 25일과 26일에 안동교도소와 상주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책 현장 방문 직후에는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2019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의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계획이 2019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6월 27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교도작업 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은 국민 누구든지 수시로 접속하여 다양한 교도작업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7월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라미 캐릭터 리뉴얼 관련 직원 설문조사 실시

교정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7일,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라미 캐릭터 리뉴얼 관련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캐릭터 시안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교정본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월 중 캐릭터 리뉴얼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 분류심사과장 워크숍 개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분류심사과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법무부 및 전국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장 등 6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분류센터 신설 등 분류심사 전담기구 관련 교정본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현 분류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분류 심사과 및 부서장의 역할 제고와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2019년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출소예정자 2,668명과 구인업체 300여 개가 참여하였으며 현장 면접,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지역 중소기업에는 구인의 기회를, 출소예정자에게는 실질적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하반기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6월 14일 법무사회관에서 제56회 한국교정학회·대한법무사협회 공동 춘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영근 한국교정학회장의 개회사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최강주 교정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70여 명의 교정 분야 학자들과 교정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재활 의지가 강한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재활 의지가 강한 수용자들의 가족 단절 극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가석방 제도의 발전방향과 출소자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 체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이달의 모범교도관' 등 포상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6월 26일 '이달의 모범교도관' 등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표창장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상 직원 14명에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119 백운 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서울구치소는 6월 19일 119 백운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은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감각을 익혔다. 이를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수료

안양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와 한국교정학회가 주관하는 제11기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 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상담을 담당할 29명의 교화상담사를 배출하였다. 수료자들에게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료증, 한국사법교육원 인증 교화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직원 역량 강화 대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6월 24일 다목적 체육시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 역량 강화 대회를 개최하였다. 불규칙한 근무패턴으로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역량을 강화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직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직원 금연클리닉 실시

인천구치소는 6월 13일~27일 매주 목요일 미주 훌구보건소와 협조하여 직원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직원들의 금연 실천과 금연 성공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가한 총 13개 기관 중 인천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가 각각 A·B조 우승을 차지하여 본선에 진출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광찬

상반기 퇴직 직원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6월 19일 상반기 퇴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에서 고된 업무에도 묵묵히 한신한 퇴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수행 중에도 및 견의 시향을 경청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장애인 무용단 초청공연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11일 장애인 무용단 '필로스 하모니 공연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한국무용 '진풍정',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 잔니스키키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의 공연으로 수용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보안과 상황대기실 리모델링 개소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6월 5일 보안과 상황대기실의 리모델링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리모델링에 따라 상황대기실이 1인실로 구분되어 직원 개인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은 직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장관기 및 청장기 예선 야구대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6월 6일 여주 양섬야구장에서 제9회 법무부장관기 및 서울지방교정청장기 예선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가한 총 13개 기관 중 인천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가 각각 A·B조 우승을 차지하여 본선에 진출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천왕성' 음악동호회, 미니콘서트 개최

서울남부교도소 '천왕성' 음악동호회는 6월 3일 월례회 시간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한 미니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호회 회원들은 통기타와 베이스기타, 키嘲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였으며, 보컬을 담당한 직원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Bravo My Life'를 열창하여 큰 박수와 감동을 이끌어냈다.

충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 캠페인 개최

충천교도소는 6월 4일 충천교도소 외부 정문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안내 및 청탁금지법 금지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청렴 문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호

한라대학교와 직원 자기계발 지원 업무협약 체결

원주교도소는 6월 18일 회의실에서 한라대학교와 원주교도소 직원 자기계발 지원 및 한라대학교 학생 교육에 필요한 인력·장비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종료 후에는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통해 한라대학교 교직원들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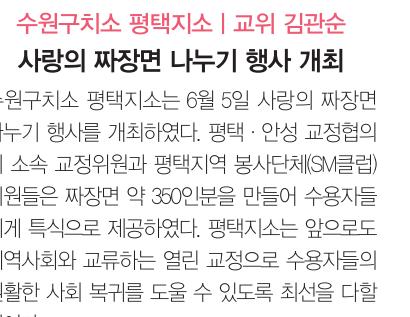
강릉교도소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기타 교실, 수채캘리그라피 교실 등 다양한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강릉교도소는 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행복도 1위 교정시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외부강사 초빙 청렴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6월 11일 백석대학교 김홍진 교수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청렴의식의 4요소(정직성, 험법성, 투명성, 보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2019년도 제1회 소망 가족사랑 캠프 개최

소망교도소는 6월 14일 두란노 어머니학교 20명의 스텝들과 함께 2019년도 제1회 소망가족사랑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수용자 13명과 41명의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가족과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렉크리에이션, 편지 쓰기,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6월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수용자 취·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정기관과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및 대구지방교정청 소속기관 담당자 등 총 5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우수 직원에게 표장을 전달하고 출소 예정자의 취업률 향상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멸종위기식물 보존 화단 조성

창원교도소는 6월 10일 환경부 산하 한식식물원의 후원으로 화단을 조성하였다. 이날 조성된 화단에는 단양쑥부쟁이, 대청부채, 삼백초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식물들을 식재하였다. 이를 통해 교정기관의 밝은 이미지가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아버지 학교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는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성교육실에서 25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버지 학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소속 봉사자 10여 명이 아버지의 영향력과 사랑을 주제로 강연과 음악경연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이 가족 관계를 회복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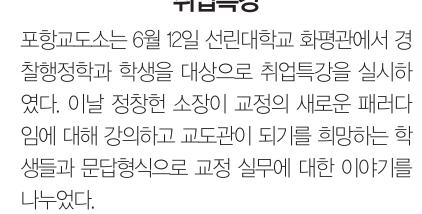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구

찾아가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6월 24일 지역 소재 기아자동차 서비스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기아자동차 전문 서비스 기술자들이 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차량을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 주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포항교도소는 선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창현 소장이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하고 교도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문답형식으로 교정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진주교도소는 6월 13일 정책현장을 점검하러 온 최강주 교정본부장을 맞이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정신·결핵질환 수형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용자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 혜화여자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준법교실 실시

대구구치소는 6월 5일 혜화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청소년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환경미화 봉사를 실시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등 수용생활 체험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10일~1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과 검사, 수사관 등 7명을 대상으로 수용생활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실제 구속 절차와 동일하게 신원 확인, 소지품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거실로 입실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등 수용자의 일상을 체험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제16전투비행단 장병 참관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6월 12일 제16전투비행단 간부 및 장병 3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공개하는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교정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수용동을 직접 눈으로 보며 교정공무원의 체험담을 들었다. 앞으로도 안동교도소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진보중학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25일 진보중학교를 방문하여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게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문성중학교 장학금 전달

김천소년교도소는 6월 12일 문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성적 우수 학생 총 4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건넸다. 이동희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보안과 4개 근무개소 근무자실 설치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6월 11일 근무자실이 없는 보안과 4개 근무개소에 근무자실을 설치하였다. 근무자실은 근무자가 각종 서류 검토 및 보고문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공간이다. 이를 설치함으로써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타 수용자에게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울산지방 변호사회 참관 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6월 11일 울산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용동과 통재실, 수용자 취사장, 내부 정문, 가족만남의 집, 민원봉사실을 둘러보고 현황 설명 등을 청취하였다. 송문희 변호사는 "실제로 보니 우리 지역의 교정시설이 지역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경주교도소는 6월 18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의 아동학대와 부모로서 사소한 행동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자가 누구인지, 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통영구치소는 6월 14일 전반적인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려 온 최강주 교정본부장을 맞이하고 구내·외 현장운영 실태와 과밀수용 관련 수용동 증축 공사 현황을 보고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정신건강 관리 및 심적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수용자 문화공연 실시

밀양구치소는 6월 3일 대강당에서 사공준 맥 무용단과 밀양백중놀이보조회를 초대하여 수용자들에게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공연은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는데, 국악 및 한국전통무용과 신명나는 밀양백중놀이가 펼쳐졌다. 문화공연을 관람하면서 수용자들은 무료했던 수용 생활을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우 사벌초등학교 · 상주중학교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6월 1일 사벌초등학교 학생 3명과 상주중학교 학생 3명 등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상주교도소는 성적우수 학생 선형 또는 효행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2019년 교정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6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 및 황우종 교정연합회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교정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교화활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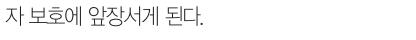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목원대학교와 수용자 재사회화 및 사회 복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는 6월 13일 목원대학교와 수용자 재사회화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목원대학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교정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대전교도소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권민석 소장은 "양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서로 활용·공유하여 대학교 및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수용자 가족을 위한 '동행카페' 개소

청주교도소는 6월 11일 전국 최초로 수용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실 '동행카페'를 개소하였다. 동행카페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와 교정위원 및 보호위원 등 지원봉사자가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법무교정 및 보호시스템을 안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관계 및 미성년자 보호에 앞장서게 된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경 성희룡·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6월 12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김윤이 외래교수를 초빙하여 성희룡·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윤이 강사는 버닝썬 사건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최우수작 1점에는 기관장 표창을 시상하여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공직자 안보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6월 19일 경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공직자의 안보의식과 올바른 국가관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초빙된 손정식 강사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통일에 대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진천 중앙교회 목사 참관 행사 개최

공주교도소는 6월 10일 진천 중앙교회 김동환 목사 등 21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본 뒤, 종교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기독교 종교집회 신도로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집회를 실시하기 전에 교정행정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Acting-Out 프로그램 실시

충주구치소는 6월 10일 월례회 시간을 이용하여 자전거 동호회 '김발이'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방방곡골 누빈 여행 일주기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이는 아근 및 고립된 배치로 인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직장 내 공동체의식을 능동적인 참여로 전환시키기 위한 행동 전이회(Acting-Ou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자전거 동호회의 일주기 발표는 많은 직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홍성교도소는 6월 3일~14일 청탁금지,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은 2019년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최우수작 1점에는 기관장 표창을 시상하여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직원체육대회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무더운 여름을 목전에 두고 직원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각 과의 대표들을 선발하여 족구, 2인 3각 달리기 경쟁을 펼치고, 단체줄넘기 등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우승팀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이 주어졌다. 체육대회 후에는 다 같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기독교 신우회 와플나눔봉사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의 기독교 신우회는 6월 5일 을지타극연습 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전 직원들을 위해 와플나눔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맛있는 점심식사 후 식당 복도에서 전 직원들과 직접 구운 바삭바삭한 와플과 음료수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특색 있는 여러 동호회 활동으로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19일 직원교육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류성민 교수를 초빙하여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황찬영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6월 2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 지부 담당자 및 소속기관 취·창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출소예정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각 기관의 업무 추진실적 및 취·창업 우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취·창업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자체 환경 정비 실시

광주교도소는 6월 19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자체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날 광주교도소 인근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교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이번 환경 정비는 직원들이 이 소통·조화·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정재형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전주교도소는 6월 17일 수원종사모의 후원을 받아 모든 수용자에게 짜장면 1,300그릇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주교도소는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수원종사모 회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

순천교도소는 6월 4일 제64회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 직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순직교도관에 대해 묵념하며, 호국보훈의

달 홍보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또한 보훈가족 위로방문 2가정 선정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목포교도소는 6월 17일 구직 희망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 채용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 시 맞춤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 채용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인업체 측의 부정적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날 동호테크 등 8개 업체가 참가하고 수용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 있는 채용면접이 이루어졌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 개최

군산교도소가 주관한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울림 CONCERT'가 6월 8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및 군산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락, 사물놀이, 램재즈,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및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무대가 펼쳐졌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모드릭' 밴드 작은 음악회 행사 개최

제주교도소는 6월 3일 음악동호회 '모드릭' 밴드의 작은 음악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밴드는 2019년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 참가곡인 유정석의 '질풍가도', Helloween의 'A tale that wasn't right' 등을 공연하였다. 직원들은 오랫동안 실력을 갚고닦은 밴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정공제회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합동소방훈련 및 직원·수용자 대상 소방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6월 4일 강진소방서 관산19안전센터와 협조하여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이 화재진압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용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직원 대상 소방용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착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하절기 맞이 환경 정비 실시

해남교도소는 6월 5일 하절기를 맞아 교도소 일대 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지난 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나무들을 정리하였다. 이번 환경 정비를 통하여 해남교도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격무직원 격려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6월 14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격무직원을 대상으로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숲 속 길 치유와 청렴문화 탐방을 주제로 하여 전남 장성군 일대의 박수랑백비, 축령산 편백나무 숲길을 걷는 심신치료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흥정기 소장은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모범공제회원 현장견학 실시

교정공제회는 상반기 2차에 걸쳐 전국 지부에서 선발된 모범공제회원과 가족 등 총 156명(회원 79명, 가족 7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제주도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하반기 10월에는 3, 4차 제주도 현장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국군교도소

교도관 힐링캠프 개최

국군교도소는 6월 17일~19일 교도관 힐링캠프를 개최하였다. 교도관 힐링캠프는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인성 함양, 교정행정업무 발전을 위해 초빙강연,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가수 조영남의 '힐링토크 콘서트'와 김경선 도예가의 '전통물레도자기 시연회' 등 특별한 강연과 공연이 마련되었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회 복귀 및 교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

정신질환 여자 수용자가 생후 2개월의 유아에게 머리 위로 이불을 덮어 주고 옷을 입히지 않아 이동보호기 관과 협조하여 유아를 보호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수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전달하여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를 심어 주었다. 교정시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하여 대민교정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서울



자체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국가위기관리능력 배양에 기여

국가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할 때 법무부 종무계획과 법무시설방호지침, 전시관계법령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 종무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주요 상황 전개 시 훈련 유관기관인 육군 8251부대 및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자체 종무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과 국가위기관리능력 배양에 기여하였다.

대전



수용자 맞춤형 접견시스템 운영으로 수용생활 안정 도모

접견 진행 담당 근무자로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등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접견시스템을 완벽히 숙지하여 접견을 원활히 진행하였다. 또한 접견 내용을 꼼꼼히 청취한 뒤 자살징후 수용자를 포착하여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관심이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접견을 주선하여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돋는 등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광주

성실한 근무 자세로 수용 질서 확립 및 수용자 고충 해소

보안과 수용 1팀 2동하 담당자로 평소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매일 조사실, 징벌실, 보호실 등 문제 거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장 애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꼼꼼하게 수행하고 원칙적인 근무 자세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07
2019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미디어에 교정공무원을 많이 알렸으면…

대학생 이재일

저는 평소에 범죄 스릴러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교도소가 잠깐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니 그동안 교도소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들과 익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하면서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익산에 가면 가볼 만한 곳으로 교도소 세트장이 있어 친구들과 잠시 들리기로 했거든요. 여행 일정을 계획하면서 자연스레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교도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이것저것 하다가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죠.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방문하면 교정공무원의 근무처우나 어려움에 대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교정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와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정공무원이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개봉되어 그들이 가진 따뜻한 인간애와 희생정신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여행이 마냥 들뜨기보다는 교정공무원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기에 미리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교정공무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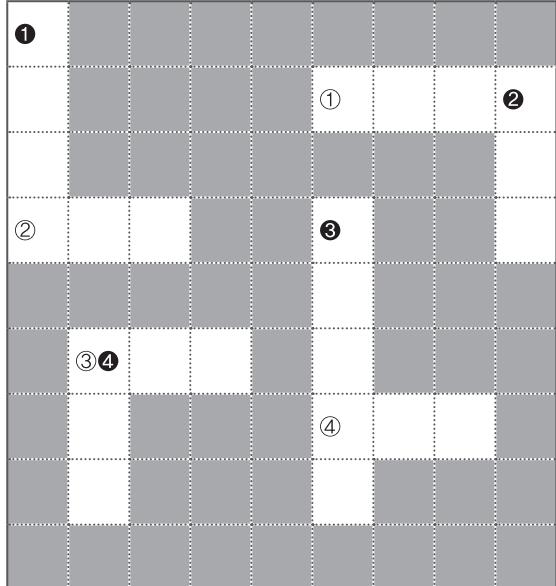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열쇠

- 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오들리노예 그네즈도산에는 독수리전망대가 있다. 해발고도가 높아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케이블카는 뭐라고 불릴까?
- ② 이 모자는 멍쟁이 중년 신사의 필수품으로 통한다. 제12회 전국교도관음악회에서 이 모자를 쓴 음악동호회가 색소폰을 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 ③ 연애 성향을 나타내는 줄임말인 이 말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모르는 사람과 데이트 하는 대신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 ④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 라이프라고 한다. 일본의 관광객 대상 숙소는 이 생활방식을 추구하듯 좁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다.



세로열쇠

- ① 청주교도소는 수용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돋기 위해 전국 최초로 ○○○○라는 가족 상담실을 개소하였다. 이곳은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법무교정 및 보호시스템을 안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이슬람 금식 성월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이 종료된 후 11만 2,500명 이상의 수형자를 감형하였다.
- ③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경제학자. 그는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동대나 수용관리팀 직원들은 당사자와 목격자 등에게 이 문서를 받아야 한다.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 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월간 <교정>은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의 소리

더 두껍게 많은 내용을 담아주세요. 가끔씩 한 달 걸려서 나오는 코너들이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만약 폐지되는 코너가 있으면 꼭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형준 님(의정부교도소 교우)

엽서 말미에 개인정보사용동의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지난 호 퀴즈 정답

①직	조	건	부	가	석	방	
업	조	건	부	가	석	방	
훈		연					
련		합		③톨			
				②스	웨	덴	
③라	포		④린	토			
			드	이			
④개	티	즈	버	그			렌



김 덕 님(대구구치소 교우)
김지은 님(서울구치소 교사)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유해영 님(청주여자교도소 교사)
권동혁 님(여주교도소 교도)

도전! K-스타트업 2019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상금의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자(팀)

진행절차

예선, 본선, 왕중왕전을 통해 20개 수상자(팀) 선정

* 예선 :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혁신창업리그, 타부처·민간리그, 지자체리그(중기부)

시상내역

20개팀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과 총 13.5억원의 상금 지급

구분	상장명	훈격(수량)	상금
창업리그	대상(1점)	대통령(1점)	3억원
	우수상(4점)	교육부장관(1점), 과기부장관(1점), 국방부장관(1점), 중기부장관(1점)	각 1억원
	장려상(5점)	중기부장관(5점)	각 0.5억원
예비창업리그	대상(1점)	국무총리(1점)	1억원
	우수상(4점)	교육부장관(1점), 과기부장관(1점), 국방부장관(1점), 중기부장관(1점)	각 0.5억원
	장려상(5점)	중기부장관(5점)	각 0.2억원

후속지원

시상(상장·상금) 외에 우수팀에 창업 사업화, 기술개발, 융자·보증 등 후속 지원

신청·접수기간

2019.5.27(월)~7.12(금)

신청방법

- 학생리그 : www.changgo.or.kr
 - 국방리그 : www.msc.or.kr
 - 혁신창업리그 : www.k-startup.go.kr
 - 타부처·민간리그 : www.k-startup.go.kr
 - 지자체리그 : www.k-startup.go.kr
- * 예선 리그별로 세부 참가자격, 신청·접수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도전! K-스타트업 2019 통합 공고' 및 예선 리그별 공고 참조

교정본부 여성 캐릭터 이름 공모



새롭게 개발된 교정본부 여성 캐릭터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19년 7월 9일(화) ~ 7월 22일(월), 14일간
공모분야 교정본부 여성 캐릭터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
공모자격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
참여방법 이메일(yjw1219@moj.go.kr, yjw1219@korea.kr)로 기한 내 제출
※ 1인당 제안 수는 1개로 제한

포상내역

- | | |
|------------------------|--------------------------------|
| • 최우수상(1명) : 포상금 50만 원 | • 우수상(1명) : 포상금 30만 원 |
| • 장려상(3명) : 포상금 10만 원 | • 참가상(20명) :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

결과발표 2019년 9월 중

※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달린 공문 참고

